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고 선 강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자원 이전에 관한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이 윤 정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자원 이전에 관한 연구

고 선 강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이 윤 정

認 准 書

이윤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자원 이전에 어머니와 자녀의 특성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자원 이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교차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주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007년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an and Families)」 자료에서 추출한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 3,719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성인 자녀간에 이뤄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 이전 및 손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의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의 자원 이전 행동에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자원 이전 실태를 살펴보았다. 미혼 성인 자녀가 있는 어머니는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비율은 31.7%로 기혼 성인 자녀가 있는 어머니가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 6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는 어머니 중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19.9%로 조사되었다.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 이전을 받는 비율은 16.1%,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이전 받는 비율은 22.3%로 나타나 어머니는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더 많이 하고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어머니는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때 보다 받지 않을 때 자원 이전을 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는 경제적 자원을 받았을 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빈도가 높았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자원 이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있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 수준,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자녀와의 동거 여부, 그리고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서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그리고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있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자원 이전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 수준,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그리고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자원 이전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그리고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자원 이전을 받을 때 통계적으로 집단간 차이가 있었던 어머니의 취업 상태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를 분석해보면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서는 미혼 성인 자녀의 연령과 취업 상태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자원 이전에서는 기혼 성인 자녀의 성별, 연령, 만 6세 이하 자녀유무,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어머니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때에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 때, 취업자일 때, 배우자가 있을 때, 건강상태가 좋을 때, 자녀가 여성일 때, 자녀의 연령이 낮을 때, 자녀가 취업하지 않았을 때, 자녀와 동거했을 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경향이 높았으며 가계 소득이나 가계 자산이 적을 때에는 그 경향성이 낮았다.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때에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 때, 비취업자일 때, 배우자가 없을 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자녀가 만 6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을 때, 자녀와 동거할 때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을 경향이 높았다. 가계 소득이나 가계 자산은 미혼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을 때와 기혼 자녀로부터 이전 받을 때와는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만 6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는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미치는 요인은 취업 상태와 자녀와의 동거 여부로 나타났다. 자녀와 동거했을 때, 취업하지 않았을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경향성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성인 자녀와 자원 교류를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특성도 가구주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원 이전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간 경제적 자원 이전을 살펴 본 선행 연구들은 주로 남성인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자원 이전 행동에 관심을 두었다. 이는 가정의 주소득원인 남성이 경제적 자원 이전의 주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고 본다. 자원 이전에 대한 연구 시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도 비중 있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6
1. 이론적 배경	6
1) 자원	6
2) 자원 이전	10
3) 자원 이전 관련 이론	11
(1) 이타주의 이론(Altruism Theory)	11
(2) 교환 이론(Exchange Theory)	13
2. 선행 연구 고찰	15
1) 사회인구학적 변수	15
(1) 성별	15
(2) 연령	16
(3) 교육 수준	17
(4) 취업 상태	18
(5) 배우자 유무	19
(6) 건강 상태	20
(7) 부모 자녀간 동거 여부	20
(8) 손자녀 유무와 돌봄 서비스 제공 여부	21
2) 재정 관련 변수(소득과 자산)	22

III. 연구 방법	25
1. 연구 문제	25
2. 자료 및 측정 도구의 구성	27
1) 자료 및 표본	27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도구	28
3) 통계 분석 방법	30
IV. 연구 결과 및 분석	32
1.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자원 이전 실태	32
1) 어머니의 성인 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 실태	32
2)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자원 이전 실태	34
3)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상호 교류	35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원이전	39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성인 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	39
(1)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39
(2)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43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손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	45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자원이전	49
(1)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49
(2)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54
3.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7
1) 어머니의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7
2)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0
3) 미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4

4) 기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7
5) 만 6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과 돌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1

V. 결론 및 제언	74
1. 요약 및 결론	74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81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29
<표 2> 어머니의 성인 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 실태	33
<표 3>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게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	34
<표 4>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자원 이전 실태	35
<표 5>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경제적 자원 교류 실태	37
<표 6> 성인 자녀와 어머니간 경제적 자원과 돌봄 서비스 교류 실태	38
<표 7>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42
<표 8>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45
<표 9>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손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	48
<표 10>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53
<표 11>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56
<표 12> 어머니의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9
<표 13>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3
<표 14> 미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6
<표 15> 기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0
<표 16> 만 6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과 돌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3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26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관점에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효를 실천하는 미덕으로 간주되었고 과거에는 자녀가 노부모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가족 부양체계가 확고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약화와 핵가족화 및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은 세대간 관계의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보호 속에 숨어든다는 의미의 ‘자라증후군’과 일본에서 등장한 ‘패러사이트 싱글(parasite single)’과 같은 신조어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인 자녀를 가리키는 것이다. ‘헬리콥터 부모’라는 신조어는 자녀 주위를 헬리콥터처럼 맴돌며 자녀의 생활에 개입하고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처럼 자녀 세대의 독립과 취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 가족 부양과 책임감에 짓눌려 하루라도 빨리 직장을 찾던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결과적으로 취업에 이르는 기간도 길어지고 독립과 결혼 시기도 늦어진다. 즉, 장기 불황으로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취업대란으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점점 희박해지는 것에 반해, 성인 자녀에게 지원되는 자원 이전의 기간은 장기화되고 있다. 경제 불황은 취업을 준비하는 세대에게만 부모에게 의존토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 결혼을 하고나서도, 독립한 후에도, 온전한 자립을 하기 어려운 사회여건 때문에 부모의 지원을 받고자 한다.

통계청(2008)의 ‘200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부모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98.6%였으며, 대학원

교육비 역시 응답자의 81.7%가 부모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혼수나 신혼집 마련에 필요한 결혼비용은 88.8%가 부모의 몫이라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71.2%는 취업을 하지 못한 성인 자녀의 용돈도 부모가 지원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부모 부양을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2002년 70.7%에서 40.7%로 떨어져 부양의식이 약화된 것에 반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당연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돌봐야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의 '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 15~59세 기혼 가구 중 자녀가 있는 1만117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를 질문한 결과, '대학 졸업 때까지'라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혼인할 때까지' 27.0%, '취업할 때까지' 11.9% 등의 순이었다. 평생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의 '언제(까지)라도'라는 대답도 5.5%나 되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필요한 노후준비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반해 노인 부양의 일정 책임을 지게 될 청·장년층의 생산 가능 인구는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노인부양 비용은 증가하였다. 2009년 9월 통계청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50~59세 취업자 수와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40대 이하가 모두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기에 중년기 여성은 부모로서의 역할 이상의 것이 기대되어지는데 그것은 조모로서의 역할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태어날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속되어 왔다. 어디서나 육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통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보육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아는 한 개인이나 집안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육아의 상당 부분은 직장 생활로 어머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딸이나 며느리를 대신한 할머니의 몫이 되고 있다. 맞벌이와 이혼율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자녀와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건사회연구원(2004)의 전국 12,000가구, 6,412명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4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83.9%가 주된 양육자가 아동의 어머니이고 다음이 조부모로 10.2%였다. 특히, 영아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11.2%를 포함하여 14.6%만이 기관을 이용하고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20.8%로 나타났다. 자녀의 어머니가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성지미과 차은영(2001)의 연구 결과에서 여성 노인과의 동거 여부와 남성 노인과의 동거 여부 중 여성 노인과의 동거 여부만이 어머니의 근로 시간을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기혼 취업 여성이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 돌보기와 가사 노동과 관련된 시간을 더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성지미·차은영, 2001). 그 외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손자녀의 양육을 조부모 중 주로 조모가 담당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배지희·노상경·권경숙, 2007; 배진희, 2007; 백경숙·김영란, 2006; 심영숙·서영미, 1999). 모성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이 나이가 들어도 돌봄 서비스로부터 남성이 비하여 자유롭기 어렵다.

이러한 추세는 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자원 이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과거에는 성인 자녀가 있는 부모 세대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 이전의 수혜 대상이 되었지만, 현재는 자원 제공자 역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김지경, 2008). 자원을 이전하는 방향이 양쪽으로 상호교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목적을 갖고 자원을 이전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특정한 계기가 필요한 자원 이전이 아닌, 일상적인 자원 이전이 발생하게 된다. 단지 부모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부모에게로의 성인 자녀의 일방적인 자원 이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녀간의 양방향적인 자원이 교류되는 것을 알 수 있다(김지경, 2004). 그러나 기존의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성인 자녀에 대한 유산 상속이나 자산 증여,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부모 부양에 관련된 자원에 관한 연구(최유호, 2004; 배희선, 1998) 등 한 측면만 다루고 있으며, 일상적인 자원 이전의 상호성을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자원 이전의 영역에 있어서도 경제적 자원 이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김순미·박미려, 2008; 김지경·송현주, 2008).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양한 차원의 관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들을 주고받는 것을 감안할 때, 부모와 성인 자녀의 세대간 자원 이전에서도 경제적 자원 이전 뿐 아니라 다른 차원의 자원 이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일상적인 자원 이전을 분석함에 있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돌봄 서비스도 경제적 자원 못지않게 주요한 세대간 자원 이전의 영역으로 다뤄져야 할 것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가사 및 양육이 노동시장의 유급 노동력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돌봄 서비스의 상품화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세대간 자원 이전라는 영역 차원에서의 인식은 미약하기 때문이다. 세대간 경제적 자원 이전을 살펴 본 선행 연구들은 주로 남성인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자원 이전 행동에 관심을 두었다. 이는 가정의 주소득원인 남성이 경제적 자원 이전의 주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고 본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

원(2007)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 일상 생활비 지출에 있어 부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65.6%,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가구 29.0%로 일상적 경제적 의사 결정은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6).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와의 일상적 경제적 자원 이전과 돌봄 서비스 제공의 주체임을 추측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특성이 자녀와의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이론적 측면에서 부부간의 조성되는 권력구조에 따른 의사 결정 유형을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벗어나 가정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의 의사결정양식에 관한 연구(박은아, 1994)와 자녀와의 사회적 지원의 교환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노인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연구(한경혜·홍진국, 2000)가 있었으나, 대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가계간 자원 이전에 여성이 주로 관여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으로 대표되기 쉬운 가구주의 특성에만 초점이 맞춰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 이전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자원 이전 및 손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 중심으로 미혼 성인 자녀와 기혼 성인 자녀간의 자원 이전 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며, 자원 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는 사적 소득 이전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복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효과에 잠재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게 된다는 Schoeni(1997)의 주장에서처럼(김지경·송현주, 2008),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과 가족복지의 향상 및 합리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1) 자원

자원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자원을 사람들과의 상호 교환의 관계에서 행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보상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Turner,1982 ; 정기원, 2001, 재인용), Deacon과 Firebaugh(1988)는 자원이 목표나 요구를 달성하는 수단이 되며,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잠재력을 가진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

박재홍(1991)은 자원의 개념이 지금까지 보상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향에 대해서 지적하고, 기존 문헌의 연구를 통하여 어의 상의 차이를 발견하고 구분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자원은 직접적으로 교환이 될 수 없는 것을 들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보상의 개념보다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였으며, 주관적 인지의 측면보다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보았다. 즉, 자원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나 사회에서 규범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원은 목표를 분명히 하거나 목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수행할 때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적 기능의 수단이라고도 한다(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 2002). 이처럼 자원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원의 공통적인 특성

은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앞서 자원의 정의를 학자마다 다양하게 보았던 만큼 가족 자원을 분류하는 방법도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진다.

가족 자원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수단이라는 것은 욕구 충족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가족 구성원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된다 (Gross Crandal & Knoll, 1980). 그러나 가족 자원은 같은 자원이라도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자원을 구성하기도 한다(정민자, 1983). MuCubbin, Wilson과 Patterson(1979)는 가족 개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주관적 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개인의 내적 동기와 정서 상태 인식을 통하여 가족 자원을 설명하였다. 사회심리학적 인 가족 자원을 개인적 자원, 가족 체계로서 갖는 자원,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갖는 지지로 분류하였다. 가족원의 개인적 자원은 잠재적이고 유용성이 있는 자원으로서 그 예로는 가정관리자의 가정 관리 능력, 자립 능력, 가족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인지 능력, 문제해결능력, 재정적 능력, 지각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건강 등이 있다. 가족 체계 자원은 가족 조직의 내부 자원이다. 가족 행동 특성 및 가족원들의 의사 결정 능력, 문제 해결력이 그 예가 된다. 일관된 상호 관계를 이루면 가족원은 가족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가족 체계의 자원이 많은 가족은 건강한 가족 관계 및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 자원은 친구나 이웃, 친척, 직장 등 사회적 교제를 통해 얻는 지지 자원을 말한다.

Deacon과 Firebaugh(1988)는 자원을 자원의 성격을 기준으로 인적 자원과 물질적 자원으로 나누었다. 인적 자원은 덜 유형적인 것으로 개인의 특성과 속성을 의미하며, 인간에 내재적이거나 시간 자원과 같이 인간과 떨어져서는 사용될 수 없는 자원을 말한다. 물질 자원은 유형적인 것으로 비인적 자

원이라고 불리며 인간에 외재적이지만 개인이나 가족에 의해 소유되거나 사용과 통제가 가능한 자원이다(임정빈 외, 2002 재인용).

조영희(1991)는 건강 자원, 지식 자원, 시간 자원, 사회적 지원 자원, 주거 자원, 금전 자원, 지역사회 자원, 심리적 유대 자원으로 분류하였다. 과거에는 물질 자원이 강조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인적 자원과 사회적 관계나 환경 자원에 대한 자각의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점차 가족 자원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경제적 자원과 도구적 영역의 한 부분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적 자원이란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김지연, 2006). 경제적 자원을 유형화한 것으로는 소득과 부를 들 수 있다.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표현한다면, 부는 일정한 시점에서의 양을 표현한다. 소비에 지출하고 남은 유량 소득은 부의 원천으로 저장될 수 있고 부는 가계 자산과 동일한 개념으로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으로 구성되어 흔히 자산으로 불린다.

특히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물질적 차원에서 가족의 외부 환경을 풍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주요한 가족 자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김양희·전세경, 1989).

성인 자녀와 부모간 경제적 자원 교류를 연구한 김지연(2006)은 가족간 경제적 자원 교류의 개념을 사적 이전과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파악하였다. 사적 이전은 가사일이나 아기 돌보기 등의 시간 서비스는 자원 교류의 범주가 포함되지만 경제적 자원 교류의 개념에서는 현금과 현물만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점은 동거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속이나 증여를 제외한 생활비 등의 일상적 경제적 자원을 주고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지연, 2006).

정의신(2008)은 사적 이전을 부모와 자식간 보조나 대부 형태로 이루어지는 소득 이전이나 현금 이전에 한정하여 그 의미를 경제적 자원 이전으로 파악하였다. 이전 소득에는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수혜와 같은 것은 공적 이전이고, 사적 이전은 개인간 혹은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이전으로 특별한 반대 급부의 수혜 자격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김기덕·손병돈, 1995). 이처럼 가족간 경제적 자원 교류의 개념은 유산, 증여, 사적 이전을 구별함으로써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손병돈, 1998).

돌봄 서비스는 Deacon과 Firebaugh(1988)가 제시한 비인적 자원 중 시간 자원과 에너지, 돌봄 지식과 태도 등이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돌봄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이며 사회구성원의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해서 요구되는 사회적 활동이며 필수적인 노동이다(Dake & Rake, 2002). 과거에는 돌봄을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졌지만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따른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여성의 교육 수준의 향상, 핵가족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가족 부담의 감소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게 되었다(강이수·신경아, 2001).

이 같은 선행 연구의 자원분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Deacon과 Firebaugh의 자원분류한 물질 자원영역에서 어머니와 성인자녀간 교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원을 경제적 자원과 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자원 이전

사회학적 관점에서 Mark와 Lambert(1997)는 “자원 이전”을 사회적 지원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사회적 지원을 내용적인 측면으로 정서적 지지와 금전적 지지, 쇼핑과 가사일을 돕고, 개인적인 돌보기 제공을 하는 도구적 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거동이 불편한 가족원에 대한 돌보기 제공에 관한 연구한 Mark와 Lambert는 돌보기 제공자와 수혜자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금전적인 지지와 정서적 지지 등의 사적 이전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선강, 2005, 재인용). 세대간 자원 이전을 고려할 때 다양한 개념과 분류를 통하여 다차원적인 형태의 자원을 포함해야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세대간 지원교환은 지원의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 자원을 정서적, 경제적, 도구적 영역으로 나눠서 살펴 볼 수 있다(김두섭·박영숙·이세용, 2000).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과 성인 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을 연구한 한민아(2004)는 세대간 지원교환 관계의 영역을 경제적 지원교환, 정서적 지원교환, 도구적 지원교환으로 구분하였다. 생활비나 급한 돈, 용돈 등의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경제적 지원교환, 집안의 문제를 의논하거나 기쁠 때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감정을 나누고 의지하는 정서적 지원교환,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주거나 식사, 세탁, 청소 등의 가사를 거들어 주는 것을 도구적 지원교환으로 들었다. 경제적 자원이전이 자원 교류의 개념에서 경제적 지원교환에 포함된다면, 돌봄 서비스는 도구적 지원교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자원 이전 관련 이론

부모와 성인 자녀의 자원 이전의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을 크게 이타주의 이론(Altruism Theory)과 교환 이론(Exchange Theory)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이 이론들은 자원을 주는 제공자가 어떠한 동기로 수혜자에게 전달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1) 이타주의 이론

이타주의론은 Becker(1991)를 중심으로 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소개된 이론으로 이타주의론에서 '이타적'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이타적인 사람이라면 타인의 안녕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 자신의 안녕감 수준이 높아진다(고선강, 2005, 재인용).

이타주의는 경제적 자원의 이전의 목적이 수혜자의 안녕감 증진을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수혜자의 안녕감 증진이 가족 전체의 안녕감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이타적 동기에 기초한다(김순미·박미려, 2008). 이타적인 경제적 자원 이전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이타적인 부모는 여러 자녀를 둔 경우 경제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고선강, 2005).

고선강(2005)은 Becker의 이타주의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한 가족 안에 이타적인 가장이 있고 이기적인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데 가장은 이타적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안녕감 수준이 가장의 안녕감 수준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가족 구성원들이 즐겁게 잘 살아야만 이타적 가정도 즐겁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Becker는 경제 효용 함수로 이 관계를

표현했는데 이타적 가장의 효용 함수를 결정짓는 요소에 가족 구성원의 효용 함수가 포함되는 것이다. 오직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서만 효용이 증대된다고 가정하면, 이타적인 가장의 안녕감 수준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가장 자신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한 가족 구성원들의 안녕감 증진을 통한 가정의 만족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타주의적 행동은 부모에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안녕감을 위하여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을 할 때 적용된다. 하지만 이타주의적 행동은 수혜자의 소득이 적을수록 가족간 소득 이전을 받을 확률과 양이 많다는 것을 가정한다(손병돈, 1997). 따라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안녕감을 위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안녕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McGarry 와 Schoeni(1995)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자원 이전하는 경우에서나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자원 이전하는 경우 모두에서 자산과 소득이 모두 경제적 교류에 있어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가족간 소득 이전이 이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한지수와 홍공숙(2007)은 경제적 자원 이전뿐 만 아니라 시간 자원 이전에도 이타주의 이론을 적용하였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보살핌의 시간을 제공하여 자신의 복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부모를 보살피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여가 시간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자녀의 효용은 낮추고 부모의 효용을 높이는 특성에 대하여 이타주의 이론으로의 해석을 하기도 하였다.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손자녀 돌봄과 같은 시간을 제공하는 행위에도 이타주의 이론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치매 부모에 대한 성인 자녀의 자원 이전에 관한 연구를 한 고선강(2008)도 이타주의론을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한정하지 않

고, 자녀로부터 부모에 대한 자원 이전으로 확장시켜 고려하였다. 성인 자녀의 효용 함수에 노부모의 효용 함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가 일정한 기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해야 자녀도 행복해 진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행복을 위하여 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모의 안녕감을 증진시키고자 자원을 이전한다는 것이다. 고선강(2008)은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자원은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돌봄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2) 교환 이론

사람들은 자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손실이 큰 행동은 피하고 투자한 이상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한다. 교환 이론은 이러한 일반명제를 시작으로 전개되어 개인간 상호작용과 그를 둘러싼 광역 집단에서의 교환작용을 다루고 있다. 교환 이론은 그 연원을 공리주의 고전경제학, 기능주의 인류학, 행동주의 심리학에 두고 있다. 교환 이론은 1960년대 후반부터는 가족 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가족원간의 교환은 부부 사이에서와 부모 자녀간 관계를 기점으로 시작되었고 광역 사회와의 관계로 확대된다. 부부 관계에서는 배우자 선택에서 교환 개념이 시작되어 부부 권력, 의사소통, 결혼 안정성, 성역할, 성행동, 가정 폭력 등에 적용되고 있다. 배우자 선택 과정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의해 보상 정도가 평가되며,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선택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물질적 보상을 더욱 추구해 가는 산업사회에서의 사회계층별 부모 행동이나 세대간 유사성이나 동일시에 보상적 관계가 미치는 영향 등이 교환 이론과 연관된다(김경신, 1993).

Cox(1987)는 교환적 분배 기준을 사적 이전 소득의 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하

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혜자들의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이전을 받는 확률과 액수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타주의 이론으로는 동기를 설명할 수 없다. 결국 부모이든 자녀든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대감에 근거하여 자원 이전 행동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교환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소득 이전의 동기가 된다(Cox & Rank, 1992). 따라서 교환 이론이 언제나 같은 형태의 자원 교환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Bernheim과 Shleifer, Summers(1985)는 여러 명의 성장한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부모가 물려줄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연구를 통하여 부모가 자신에게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하는 자녀에게 보상의 차원으로 자산을 더 물려줄 수 있다고 밝혔다(고선강, 2008, 재인용)

부모로부터 보다 많은 상속과 같은 경제적 자원을 얻으려는 기대를 하거나 부모가 제공하는 아이 돌보기나 집 봐주기, 혹은 가사 일을 도와주는 것 같은 도구적 자원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득 이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든 자녀가 경제력을 가질 때까지 자녀의 교육이나 사업 등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부모가 늙었을 때 자녀가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암묵적인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김지경·송현주, 2008 ; Lee, Paris & Willis, 1994 재인용).

교환 이론에서는 기부자가 금융 자산의 이전을 이용해서 수혜자로부터 미래에 되돌아 올 자원에 대한 흥정을 한다고 본다. 교환 이론에서 상호호혜성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둔다. 돌아올 보상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의 장기적인 보상일 수도 있다(Sabatelli & Shehan, 1993 ; 고선강, 2005, 재인용). 따라서 교환 이론은 소득 수준이나 더 많은 자원을 가졌을 경우 기혼 성인과 자녀간

자원 이전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이전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

2. 선행 연구 고찰

1) 사회인구학적 변수

(1) 성

성은 세대간 자원 이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만드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행 연구들에서는 수혜자 뿐 아니라 제공자의 성별도 자원 이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cGarry와 Schoeni(1995)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자원을 이전할 경우 여성인 어머니일 때 이전 가능성과 규모가 커진다고 하였으며, Cox(1987)의 연구에서도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김지경·송현주(2008)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아들일 경우 사적 소득 이전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전 받는 소득 금액에도 자녀가 아들일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x(1987)은 1979년의 President's Commission on Pension Policy(PCPP)의 조사를 활용하여 3,440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적 소득 이전의 동기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소득 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사회적 차별을 받는데 대한 일종의 보상의 측면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에 있어 수혜자의 성별뿐만 아니라 제공자의 성별 즉 자녀와 부모의 성별 모두가 의미 있는 변인이 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McGarry와 Schoeni(1995)의 Health and Retirement Survey(HRS)와 1988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의 데이터를 활용한 부모와 성인 자녀의 소득 이전 수혜 여부와 소득 이전 수혜액에 관한 연구 결과,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자녀로부터

소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선영(2008)의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2005)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사적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별이 사적 이전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성보다 여성일 경우 사적 이전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았다. 김지경과 송현주(2008)의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소득 이전의 규모와 이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가 아들일 경우 사적 소득 이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받는 소득 금액에도 자녀가 남자일 경우 소득 이전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

연령의 경우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는 부모의 연령이 높고 자녀의 연령은 낮을수록 소득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Cox, 1987; McGarry & Schoeni, 1997). 주로 부모가 제공자일 경우 연령이 높으면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다(Cox, 1987; Secondi, 1997; 윤선영, 2008).

Cox(1987)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으면 자녀로부터 소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McGarry와 Schoeni(1995)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Secondi(1997)의 중국 농촌의 1988가구를 대상으로 가족내 경제적 자원 이전에 이타주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을 경우 부모 연령이 60세 이상일 때 자녀로부터 이전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반면 김지경·송은경(2004)의 연구에서 젊은 자녀 가구의 집단에서 부모와

의 일상적 교류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선영(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연령이 사적 이전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적 이전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삼(2008)의 한국노동패널의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에 대한 문항이 도입된 제4차 조사 이후의 데이터와 만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부가조사가 포함된 제6차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적 소득 이전과 노인 소득 보장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녀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 수급 연령이 75세를 전후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 수준

대다수의 연구 결과(김순미·박미려, 2008; 진재문, 1999; Cox, 1987)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수혜자의 측면에서 본 김순미·박미려(2008)의 연구 결과에서는 수혜자의 학력이 높으면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ox(1987)의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으면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도 역시 교육 수준이 높으면 부모에게 자원 이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재문(1999)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의 사립학교 교원연금의 수급대상자로서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 500명, 생활보호대상자 150명, 일반인 150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 자원 제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미·박미려(2008)의 제6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중 총 1,679가구의 데이터를 표본으

로 사용한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 유형별 실태와 교류액을 파악한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이 중·고령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김희삼(2008)의 연구에서는 소득과 기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학력은 사적 이전에 유의한 효과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선영(2008)의 연구에서는 전체 노인 가구의 자원 이전 결정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노인의 교육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취업 상태

취업여부는 소득이나 자산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경제적 자원 이전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된다. 선행 연구(김지경·송은경, 2004; 손병돈, 1999)에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때 경제 활동을 할 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비취업자인 경우에는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고선강(2005)의 연구에서는 취업을 한 성인 자녀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손병돈(1998)의 부모와 생존해 있으면서 동거하지 않는 만 25세 이상 60세 미만의 서울시 579개의 기혼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족간 소득 이전 결정 요인의 계층간 비교 연구에서는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가 근로 활동을 하는 부모에 비하여 자녀로부터 자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병돈(1999)의 서울시 기혼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부모 부양의 동기와 재배분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퇴직한 부모일수록 자식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지경과 송은경(2004)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 이전이 존재하는 가구는 가구주가 취업 상태인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교류가 없는 가구의 경우 미취업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고선강(2005)의 미국의 위스콘신종적연구조사(1957년 위스콘신주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1965, 1975, 1992년까지 4차례의 설문 및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한 패널연구조사)의 조사 대상자 중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살아있는 52세 성인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미혼 성인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 이전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취업을 한 성인 자녀는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에게 금융 자산의 이전을 제공할 확률이 적었다.

(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유무는 자원을 받는 수혜자의 경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손병돈, 1999; 김순미·박미려, 2008; 김희삼, 2008)에서 부모가 배우자가 없을 때 자녀로부터 자원 이전을 제공받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병돈(1999)의 연구에서 자녀들이 노인 부부 가구보다 아버지나 어머니 혼자 사시는 가구에게 소득 이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순미와 박미려(2008)의 연구에서 부모가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일 경우 경제적 자원을 수혜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독거노인이 다른 가족유형의 노인보다 빈곤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김희삼(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사별해 혼자된 경우 자식으로부터의 소득 이전액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적 이전의 이타적 동기를 확인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6) 부모의 건강 상태

부모의 건강 상태는 부모와 성인 자녀간 자원 이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타주의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에게 자원을 이전하지만 좋지 않을 때에는 자원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진재문(1999)의 연구에서 부모의 건강 상태와 이전 규모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에게 더욱 이전한다고 하였다. 김순미·박미려(2008)의 연구에서 노령이나 질병으로 경제적 자원 이전에 대한 욕구가 큰 부모일수록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김희삼(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본인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자식으로부터의 소득 이전의 액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윤선영(2008)의 연구에서는 전체 노인가구의 자원 이전 결정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노인의 건강 상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선강(2005)의 연구에서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금융 자산을 이전할 때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금융 자산의 이전 행동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재정적 필요가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7) 부모 자녀간 동거 여부

부모 자녀간 동거 여부가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한 선행 연구는 소수였다. 그러나 동거하지 않는 부모와 성인 자녀간 자원 이전에 대한 연구(김지경·송현주, 2008; 김지연, 2006; 문숙재·김지연, 2006; 송은

경, 2005; 김지경·송은경, 2004; 한경혜·홍진국, 2000)가 대부분이다.

성지미와 차은영(2001)은 세대간 사적 자원 이전의 형태를 이전 소득으로서의 금전, 시간, 공간 등 세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동거할 경우 동일 공간을 공유하며 금전과 시간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8) 손자녀 유무와 돌봄 서비스 제공 여부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손자녀의 가 있을 때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부모와 성인 자녀간 자원 이전에 중요한 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김지경·송현주, 2008 ; 김희삼, 2008). 윤선영(2008)의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돌볼 때 사적 이전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윤선영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에 대한 댓가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적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돌봄에 대한 댓가를 포함하여 고려한다면 결국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을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환 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부모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김지경과 송현주(2008)의 연구에서 손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부모간의 사적 소득 이전총액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받는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이전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삼(2008)의 연구에서는 자녀 가구의 가구원수가 많으면 소득 이전 여력의 감소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이 줄어들지만 이 중 미성년 자녀수가 많으면 사적 이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환 동기가 있다하더라도 부모의 어린 손자녀를 돌봐주는 것에

대한 보상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윤선영(2008)의 연구에서는 손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적 이전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돌보지 않는 경우보다 사적 이전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손자녀를 전담하여 돌보는 경우 손자녀 돌봄에 대한 댓가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적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단 손병돈(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용역 형태(간병/수발, 집 봐주기, 집안 일, 손자녀 돌보기 등의 비물질적 서비스)의 도움 유무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가족간 소득 이전이 용역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교환이론의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2) 재정 관련 변수

가계 소득과 자산 관련 변수는 앞서 언급한 자원 이전 동기에 중요한 변인으로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이전의 방향과 관계없이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소득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즉, 제공자의 자산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이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자원 이전의 동기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수혜자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이타주의적 관점에서는 이전의 양이 감소하게 되며 교환주의적 관점에서는 수혜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McGarry와 Schoeni(1995)의 연구에서 부모로부터 자녀로의 소득 이전의 가능성은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면 부모가 자녀로부터 소득 이전을 받을 확률은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산과 소득이 낮은 부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병돈(1998)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계층이 최상 계층을 기준으로 중간 계층의 부모들이 경제적 욕구의 미충족 상태에 있는데 반해, 자녀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중간 계층이 가장 경제적 이전의 수혜를 많이 받고 최상 계층, 최하 계층의 부모 순으로 경제적 이전을 받는다고 하였다. 손병돈(1999)의 다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로부터 이전을 많이 받지 못 하였다. 고선강(200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득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자녀로부터 금융 자산의 이전을 받을 확률이 낮았다. 김순미와 박미려(200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을 상실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크다. 윤선영(2008)의 연구에서도 소득과 자산이 사적 이전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은 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 사용되고 있으나, 사적 이전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이전의 가능성이 더 높아 가족간의 경제적 자원 이전이 소득균등화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타적 동기로 설명될 수 있다. 반면 자산이 많을수록 소득 이전의 가능성이 더 높게 나왔다. 이것은 부모 자녀간의 서비스 교환에 의해 사적 이전이 결정된다는 교환 동기가 적용되었다. 김희삼(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이 자녀가 소득 이전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타적 동기에서 자원을 이전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자원 이전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였다.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 외에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연령, 교육 수준,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주관적인 건강 상태, 또한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취업 상태(미혼 성인 자녀일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 유무(기혼 성인 자녀일 경우)를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동거 여부를 독립 변수에 포함시켜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자원 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자원 이전 실태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원 이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자원 이전 실태는 어떠한가?

- 1-1) 어머니의 성인 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 실태를 파악한다.
- 1-2)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자원 이전 실태를 파악한다.
- 1-3) 어머니와 성인 자녀와의 자원 교류 실태를 파악한다.

【연구 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자원 이전의 차이는 어떠한가?

- 2-1)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경제적 자원 이전의 차이를 분석한다.
- 2-2)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경제적 자원 이전의 차이를 분석한다.
- 2-3)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손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의 차이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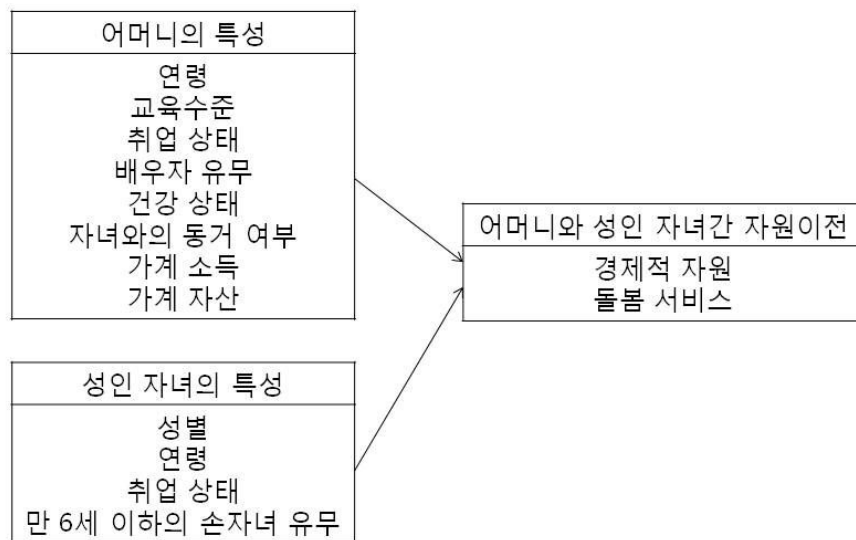
【연구 문제 3】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1) 어머니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3-2)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3-3) 만 6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자료 및 측정 도구의 구성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의 자원 이전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an and Families:이하 KLoWF)」이다. KLoWF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이 가구원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해당 여성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조사로 일 년에 일 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에 조사된, 2007년도 1차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추출된 9,068가구에 거주하는 9,997명이 원표본이다.

KLoWF는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크게 가구용 설문, 개인용 설문, 일 자리용 설문으로 구분된다. 가족, 일, 일상생활의 세 가지 주요영역을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과 가족 실태, 가족 가치관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자료 중에서 연구목적에 따라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구당 한명을 추출하여 3,719명을 연구 표본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어머니가 미혼인 한 가구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료를 통합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718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및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는 어머니와 자녀간 경제적 자원 이전의 유무와 만 6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혼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제공 여부이다. 경제적 자원 이전은 어머니와 배우자(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이 있는지, 반대로 자녀에게 받는 경제적 자원이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경제적 도움을 말한다. 만 6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혼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기혼 성인 자녀의 자녀를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돌보고 있는 지로 측정한다. 독립변수는 어머니와 관련된 특성과 성인 자녀와 관련된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와 관련된 변수로는 연령, 교육 수준, 취업여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가계 소득, 가계 자산, 성인자녀와의 동거여부를 선택하였다. 성인 자녀와 관련된 변수로는 성인자녀의 성별, 연령, 미혼 성인자녀의 취업여부, 기혼 성인 자녀의 만 6세 이하의 자녀 유무를 선택하였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무학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조사 시점의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다. 문항의 1점은 '건강이 아주 나쁜 편이다'에서부터 5점은 '아주 건강하다'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가계 소득은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가계 소득을 측정하였다. 가계 소득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금융 소득, 부동산 소득, 사회 보험, 이전 소득, 기타 소득 등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금융 소득에는 예금의 이자 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하지 않은 경우는 금융 소득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부동산 소득에는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의 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으로 부동산 소득에서 제외시켰다. 사회 보험에는 국민 연금, 특수 직역 연금, 산재 보험, 보훈 연금 및 실업 급여와 특혜 노령 연금의 합을 제시하였다. 이전 소득에는 친인척 지원금, 정부 및 사회단체의 보조금, 경로 우대 교통비를 포함하였다. 소득에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을 들었다가 해약하고 받은 돈이나 퇴직금, 복권 당첨금, 증여 또는 상속과 같은 소득이 포함되었다.

또한, 가계 자산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값으로 계산하였다. 자산에는 부동산 자산, 유형 자산, 금융 자산이 포함되었다. 부동산 자산에는 부동산의 시가 총액이며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보증금 총합을 포함하였다. 금융 자산은 은행 예금,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 보험 그리고 기타 금융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부채는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 기관 부채 그리고 기타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 여부는 기혼 성인 자녀가 돌봐야 할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돌보고 있는가의 여부로 파악하였다.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구분	변수	정의 및 측정 방법
종속 변수	성인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 유무	1=경제적 도움을 준다 0=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여부	1=일주일에 한 시간이상 돌본다 0=일주일에 한 시간이상 돌보지 않는다
	성인 자녀에게 받는 경제적 자원 유무	1=경제적 도움을 준다 0=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독립 변수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세
	학력	1=무학, 초등학교 2=중학교 3=고등학교 이상
	취업 상태	1=취업 2=비취업
	건강 상태	1=건강이 아주 나쁜 편이다 2=별로 건강하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건강한 편이다 5=아주 건강하다
	배우자 유무	1=유배우자 0=무배우자
	자녀와의 동거 여부	1=동거 0=비동거
	가계 소득 (2007년 1월~6월) 단위 : 만원	근로 소득+사업 소득+금융 소득+부동산 소 득+사회 보험+이전 소득+기타 소득(보험금, 퇴직금, 증여, 상속) 하=0~300 (20.6%) 중=363~1858 (60.0%) 상=1860~44200(19.8%)
	가계 자산 (조사시점) 단위 : 만원	(부동산 자산+유형 자산+금융 자산) - 가구 부채 하=-19700~3987 (20.0%) 중=3989~23998 (60.0%) 상=24000~270050 (20.0%)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1=남 0=여
	연령	세
	취업 상태	1=취업 0=비취업
만 6세 이하자녀유무	1=유 0=무	

3) 통계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Version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 1>의 어머니와 그들의 성인 자녀간의 자원 이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중위수,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 2>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자원 이전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 3>의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원 이전 유무를 종속 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자원 이전 실태

1) 어머니의 성인 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 실태

조사대상인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의 자원 이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어머니의 성인 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 실태는 <표 2>과 <표 3>에 빈도와 백분율, 이전하는 자원의 평균값, 표준 편차, 중위수를 제시하였다. <표 2>에서는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와 기혼 성인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제적 자원과 돌봄 서비스 제공 실태를 볼 수 있다. 미혼 성인 자녀가 있는 2,899명의 어머니 중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는 68.3%, 하는 경우는 31.7%였다.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 한 달 평균 약 46만원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는 90.3%, 하는 경우는 9.7%로,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 한 달 평균 액수는 약 16만원으로, 미혼 성인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제적 자원보다 적은 비율과 금액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만 6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는 어머니 1,051명 중 손자녀 돌보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80.1%, 돌보기를 하는 경우는 19.9%로 나타났다. 손자녀 돌보기를 하는 경우에 일주일에 제공하는 손자녀 돌보기 시간은 평균 약 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어머니의 성인 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 실태

		어머니가 성인 자녀에게 이전하는 자원											
		미혼 성인 자녀 (n=2899)						기혼 성인 자녀 (n=2052)					
		빈도	백분율	금액(원/월)				빈도	백분율	금액(원/월)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n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n
경제적 자원	이전하지 않는다	1979	68.3	X				1853	90.3	X			
	이전한다	920	31.7	46.35	48.998	30.00	915	199	9.7	16.66	29.390	5.00	193
		미혼 성인 자녀 (n=2899)						기혼 성인 자녀(n=1051)					
		빈도	백분율	시간(시간/주)				빈도	백분율	시간(시간/주)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n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n
돌봄서비스	제공하지 않는다	X						842	80.1	X			
	제공한다	X						209	19.9	7.27	5.603	6.00	208

<표 3>은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를 만 6세 이하 손자녀 유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만 6세 이하의 손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비율이 9.0%였고, 만 6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 1,051명의 어머니 중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는 10.3%로 조사되었다. 만 6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을 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비율은 높았지만 평균 금액에서는 손자녀가 없을 때 월 평균 액수가 약 18만원보다 적은 약 1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게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

어머니가 성인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제적 자원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기혼 성인 자녀(n=1008)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n=1051)					
	빈도	백분율	금액				빈도	백분율	금액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n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n
이전하지 않는다	915	91.0	X				934	88.9	X			
이전한다	91	9.0	18.93	37.729	5.00	88	108	10.3	14.76	19.898	5.00	105

2)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자원 이전 실태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자원 이전 실태 역시 빈도와 백분율, 이전하는 자원의 평균값, 표준 편차, 중위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미혼 성인 자녀가 있는 2,925명의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 이전을 받지 않는 비율은 83.9%, 받는 비율은 16.1%로 조사되었다.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경우 평균 한 달에 약 39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성인 자녀가 있는 2,063명의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지 않는 비율은 77.7%, 제공 받는 비율은 22.3%로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것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제공받는 금액은 약 39만

원,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받는 금액은 약 19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4>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

성인 자녀가 어머니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												
	미혼 성인 자녀(n=2925)						기혼 성인 자녀(n=2063)					
	빈도	백분율	금액				빈도	백분율	금액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n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n
이전하지 않는다	2442	83.9	X				1598	77.7	X			
이전한다	467	16.1	39,36	43,794	20,00	460	458	22.3	19,69	24,235	10,00	453

3)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상호교류

어머니가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 여부에 따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의 여부에 따라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집단과 받지 않는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때,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어머니가 경제적 자원을 받지 않

은 비율은 34.3%, 경제적 자원을 받는 경우는 17.5%로 나타났다. 즉,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지 않을 때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주는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의 여부에 따라,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집단과 받지 않는 집단간에도 역시 유의한 차이가 보였으나, 이는 미혼 성인 자녀와의 상호 자원 교류 방향과는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때,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비율은 5.2%,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지 경우는 25.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지 않는 경우, 받는 경우에 비하여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5>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경제적 자원 교류 실태

미혼 성인 자녀와 어머니가 주고받는 경제적 자원								X ²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 여부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한다		전체		
		n	%	n	%	n	%	
미혼 성인 자녀가 어머니에게 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 여부 (n=2894)	이전하지 않는다	1595	65.6	835	34.4	2430	100	51.469***
	이전한다	383	82.5	81	17.5	464	100	
전체		1978		916		2894		
기혼 성인 자녀와 어머니가 주고받는 경제적 자원								X ²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 여부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한다		전체		
		n	%	n	%	n	%	
기혼 성인 자녀가 어머니에게 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 여부 (n=2052)	이전하지 않는다	1512	94.8	83	5.2	1595	100	165.170***
	이전한다	341	74.6	116	25.4	457	100	
전체		1853		199		2052		

***p < 0.001

어머니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과 돌봄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기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을 이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제공하는 집단과 제공하지 않는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경우,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지 않는 비율은 5.7%,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비율은 24.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이전을 할 때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경우 어머니가 만 6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 경우와 돌보는 경우의 비율이 각각 10.1%와 11.3%로 분석되었으나,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성인 자녀와 어머니간 경제적 자원과 돌봄 서비스 교류 실태

(단위: n,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와 어머니가 주고받는 경제적 자원과 돌봄 서비스								
		기혼 성인 자녀가 어머니에게 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 여부						X ²
		하지 않는다		한다		전체		
		n	%	n	%	n	%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 여부 (n=1042)	이전 하지 않는다	741	94.3	45	5.7	786	100	74.124***
	이전 한다	193	75.4	63	24.6	256	100	
전체		934		108		1042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여부 (n=1042)	이전 하지 않는다	753	89.9	85	10.1	838	100	.226
	이전 한다	181	88.7	23	11.3	204	100	
전체		934		108		1042		

***p< 0.001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원 이전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성인 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

(1)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의 차이를 교차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 수준,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자녀와의 동거 여부, 그리고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50.7%, 50대는 27.9%, 60세 이상은 15.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연령이 낮은 그룹의 경우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최종 학력이 무학이나 초등학교일 경우 20.9%, 중학교의 경우 29.4%,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 44.1%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육 수준이 높은 그룹의 경우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 상태가 비취업자인 경우에는 26.6%, 취업자인 경우에는 36.2%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취업한 경우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무배우자 어머니 그룹이 17.3%, 유배우자 어머니 그룹의 34.4%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하였다. 즉, 유배우자 어머니 그룹이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미혼 성인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21.9%, 동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36.5%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여, 미혼 성인 자녀와 동거할 때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가계 소득이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은 14.1%,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은 32.8%,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은 40.3%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자원을 이전하였다. 가계 소득이 높은 그룹의 경우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미혼 성인 자녀에게 자원을 이전 하는 경우는 가계 자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은 5.7%,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이 31.6%,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41.5%로 나타났다. 가계 자산도 가계 소득과 마찬가지로 높은 금액을 가진 그룹의 경우 자원 이전의 빈도가 높은 결과가 나왔다.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서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그리고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최종 학력이 무학이나 초등학교일 경우 12.1%, 중학교의 경우 6.6%,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 5.0%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여 교육 수준이 낮은 그룹이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그룹의 경우 자원 이전 빈도가 높았던 것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 상태가 비취업자인 경우에는 4.9%, 취업자인 경우에는 14.2%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무배우자 어머니 그룹이 5.5%, 유배우자 어머니 그룹의 10.8%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였다. 유배우자 어머니

그룹이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기혼 성인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9.1%, 동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19.7%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였다. 기혼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어머니 그룹이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가계 소득이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은 4.8%,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은 11.6%,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은 12.8%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이전하였다. 가계 소득이 높은 그룹의 경우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기혼 성인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는 가계 자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은 5.7%,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이 12.0%,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12.0%로 나타났다. 가계 자산도 가계 소득과 유사하게 높은 금액을 가진 그룹의 경우 자원 이전의 빈도가 높은 결과가 나왔다.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때 유의했던 성별과 건강 상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 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를 자녀의 결혼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비율(9.7%)보다 미혼 성인 자녀에게 이전 하는 비율(31.7%)이 높았다.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의 실태를 보았을 때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교육 수준,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자녀와의 동거 여부, 가계 소득, 가계 자산)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기혼 성인 자녀에게 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의 실태에서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7>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n=2925)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n=2063)							
어머니의 특성	범주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한다		전체		χ^2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한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연령	50세 미만	388	49.3	399	50.7	787	100	209.697*** (n=2899)	69	92.0	6	8.0	75	100	.262 (n=2052)
	50~59세	1132	72.1	439	27.9	1571	100		920	90.3	99	9.7	1019	100	
	60세 이상	459	84.8	82	15.2	541	100		864	90.2	94	9.8	958	100	
교육 수준	무학/초등	829	79.1	219	20.9	1048	100	134.394*** (n=2899)	1102	87.9	152	12.1	1254	100	22.066*** (n=2050)
	중등	544	70.6	226	29.4	770	100		424	93.4	30	6.6	454	100	
	고등이상	603	55.9	475	44.1	1078	100		325	95.0	17	5.0	342	100	
취업 상태	비취업	994	73.4	360	26.6	1354	100	31.070*** (n=2899)	945	95.1	49	4.9	994	100	50.053*** (n=2052)
	취업	985	63.8	560	36.2	1545	100		908	85.8	150	14.2	1058	100	
혼인 상태	무배우자	372	82.7	78	17.3	450	100	50.856*** (n=2898)	394	94.5	23	5.5	417	100	10.453** (n=2052)
	유배우자	1607	65.6	841	34.4	2448	100		1459	89.2	176	10.8	1635	100	
건강 상태	하	600	76.1	188	23.9	788	100	84.299*** (n=2899)	678	89.9	76	10.1	754	100	.997 (n=2052)
	중	496	76.4	153	23.6	649	100		450	91.5	42	8.5	492	100	
	상	883	60.4	579	39.6	1462	100		725	90.0	81	10.0	806	100	
자녀와의 동거 여부	비동거	741	78.1	208	21.9	949	100	62.766*** (n=2899)	1759	90.9	176	9.1	1935	100	14.056*** (n=2052)
	동거	1238	63.5	712	36.5	1950	100		94	80.3	23	19.7	117	100	
가계 소득	하	366	85.9	60	14.1	426	100	83.780*** (n=2793)	553	95.2	28	4.8	581	100	23.038*** (n=1998)
	중	1162	67.2	567	32.8	1729	100		1053	88.4	138	11.6	1191	100	
	상	381	59.7	257	40.3	638	100		197	87.2	29	12.8	226	100	
가계 자산	하	361	78.5	99	21.5	460	100	45.686*** (n=2484)	346	94.3	21	5.7	367	100	12.090** (n=1772)
	중	1021	68.4	471	31.6	1492	100		987	88.0	135	12.0	1122	100	
	상	311	58.5	221	41.5	532	100		249	88.0	34	12.0	283	100	

p < .01 *p < .001

(2)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를 분석하여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서는 미혼 성인 자녀의 연령과 취업 상태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는 미혼 성인 자녀의 나이가 20세에서 24세일 때가 51.9%, 25세에서 29세가 27.3%, 30세에서 49세가 13.8%로 나타났다. 미혼 성인 자녀의 연령이 낮은 그룹의 경우 부모의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는 미혼 성인 자녀의 취업 상태가 비취업자인 경우에는 59.6%, 취업자인 경우에는 8.3%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였다. 미혼 성인 자녀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서는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때에도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미혼 성인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었으나, 기혼 성인 자녀에게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기혼 성인 자녀의 성별에 있어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는 기혼 성인 자녀의 성별이 남성일 때 8.4%, 여성일 때 11.3%로 나타났다. 기혼 성인 자녀가 남성일 때보다 여성일 때 어머니의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었다.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성인 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를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 실태와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으로 구분 해 볼 수 있다.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의 실태를 봤을 때 미혼 성인 자녀의 연령이나 취업 상태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던 자녀의 성별은 기혼성인 자녀에게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연령에 따라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경제적 자원 이전 (n=2925)								
자녀의 특성	범주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한다		전체		χ ²
		n	%	n	%	n	%	
성별 (n=2898)	남	1210	69.4	534	30.6	1744	100	2.566
	여	768	66.6	386	33.4	1154	100	
연령 (n=2898)	20세~24세	461	48.1	497	51.9	958	100	306.623***
	25세~29세	838	72.7	314	27.3	1152	100	
	30세~49세	679	86.2	109	13.8	788	100	
취업 상태 (n=2899)	비취업	535	40.4	789	59.6	1324	100	872.950***
	취업	1444	91.7	131	8.3	1575	100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경제적 자원 이전 (n=2063)								
자녀의 특성	범주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한다		전체		χ ²
		n	%	n	%	n	%	
성별 (n=2052)	남	1044	91.6	96	8.4	1140	100	4.775*
	여	809	88.7	103	11.3	912	100	
연령 (n=2047)	21세~29세	382	91.0	38	9.0	420	100	.473
	30세~34세	747	89.8	85	10.2	832	100	
	35세~57세	719	90.4	76	9.6	795	100	
만 6세 이하 자녀유무 (n=2048)	무	915	91.0	91	9.0	1006	100	1.015
	유	934	89.6	108	10.4	1042	100	

*p< .05 ***p< .001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손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

어머니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를 어머니와 기혼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교육 수준,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그리고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집단간 차이가 있었던 것과 유사하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최종 학력이 무학이나 초등학교일 경우 17.4%, 중학교의 경우 23.4%,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 23.9%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은 그룹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이전을 할 때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은 그룹이 자원 이전 빈도가 낮았던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 상태가 비취업자인 경우에는 28.8%, 취업자인 경우에는 12.4%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무배우자 어머니 그룹의 26.0%, 유배우자 어머니 그룹의 18.4%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무배우자 어머니 그룹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것 또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과는 반대방향이다. 또 기혼 성인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14.8%, 동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90.1%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그룹이 돌봄 서비스 제공의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가계 소득이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은 15.9%,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이 18.9%,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31.4%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가계 소득이 많은 그룹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기

혼 성인 자녀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계 자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은 17.5%,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이 19.3%,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21.9%로 나타났다. 가계 자산도 가계 소득과 마찬가지로 높은 금액을 가진 그룹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 빈도가 높은 결과가 나왔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과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기혼 성인 자녀의 성별이 남성일 때 17.2%, 여성일 때 23.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어머니가 만 6세 이하의 친손자녀보다는 만 6세 이하의 외손자녀를 돌보는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9>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손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에게 이전하는 돌봄 서비스 (n=1051)								
어머니의 특성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한다		전체		χ ²
		n	%	n	%	n	%	
연령 (n=1051)	55세 이하	258	80.1	64	19.9	322	100.0	2.118
	56~60세	319	78.0	90	22.0	409	100.0	
	61~65세	265	82.8	55	17.2	320	100.0	
교육 수준 (n=1051)	무학/초등	522	82.6	110	17.4	632	100.0	6.139*
	중등	196	76.6	60	23.4	256	100.0	
	고등이상	124	76.1	39	23.9	136	100.0	
취업 상태 (n=1051)	비취업	348	71.5	139	28.5	487	100.0	42.684
	취업	494	87.6	70	12.4	564	100.0	***
배우자 유무 (n=1051)	무배우자	151	74.0	53	26.0	204	100.0	5.902
	유배우자	691	81.6	156	18.4	847	100.0	*
건강 상태 (n=1051)	하	296	81.3	68	18.7	364	100.0	.629
	중	210	80.2	52	19.8	262	100.0	
	상	336	79.1	89	20.9	425	100.0	
자녀와의 동거 여부 (n=1051)	비동거	835	85.2	145	14.8	980	100.0	235.905
	동거	7	9.9	64	90.1	71	100.0	***
가계 소득 (n=1027)	하	222	84.1	42	15.9	264	100.0	12.839
	중	523	81.1	122	18.9	645	100.0	
	상	81	68.6	37	31.4	118	100.0	
가계 자산 (n=927)	하	132	82.5	28	17.5	160	100.0	.953
	중	497	80.7	119	19.3	616	100.0	
	상	118	78.1	33	21.9	151	100.0	
자녀의 특성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한다		전체		χ ²
		n	%	n	%	n	%	
성별 (n=1051)	남	472	82.8	98	17.2	570	100.0	5.669*
	여	370	76.9	111	23.1	481	100.0	
연령 (n=1051)	21세~30세	258	79.9	62	20.1	323	100.0	1.134
	31세~34세	272	81.9	60	18.1	332	100.0	
	35세~57세	312	78.8	84	21.2	396	100.0	

*p< .05 **p< .01 ***p< .001

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자원 이전

(1)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어머니가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의 차이를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자원 이전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 수준,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그리고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경우 50세 미만이 6.7%, 50대는 16.0%, 60세 이상은 29.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어머니의 연령이 높은 그룹의 경우 미혼 성인 자녀에게 자원을 받는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최종 학력이 무학이나 초등학교일 경우 22.6%, 중학교의 경우 15.9%,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 9.7%가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육 수준이 낮은 그룹의 경우 자원 이전을 받는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 상태가 비취업자인 경우에는 18.9%, 취업자인 경우에는 13.5%가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보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무배우자 어머니 그룹이 25.2%, 유배우자의 어머니 그룹의 14.4%가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유배우자 어머니 그룹보다 무배우자 그룹이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건강 상태의 경우 건강 상태를 좋지 않다고 평가한 어머니의 23.1%, 보통이라고 평가한 그룹의 16.8%, 건강 상태를 좋다고 평가한 그룹 11.9%가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그룹이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미혼 성인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18.1%, 동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15.1%가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미혼 성인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 그룹이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가계 소득이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은 18.8%,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은 17.4%,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은 10.9%가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가계 소득이 적은 그룹의 경우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의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경우는 가계 자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은 16.7%,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이 18.2%,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11.0%로 나타났다. 가계 자산도 가계 소득과 마찬가지로 높은 금액을 가진 그룹의 경우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자원 이전 빈도가 높은 결과가 나왔다.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의 제공받는 경제적 자원 이전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그리고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자원 이전을 받을 때 통계적으로 집단간 차이가 있었던 어머니의 취업 상태는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경우 50세 미만이 9.3%, 50대는 18.2%, 60세 이상은 27.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어머니의 연령이 높은 그룹의 경우 기혼 성인 자녀에게

자원을 받는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최종 학력이 무학이나 초등학교일 경우 24.8%, 중학교의 경우 17.8%,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 19.0%가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육 수준이 낮은 그룹의 경우 경제적 자원을 받는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무배우자 어머니 그룹의 29.7%, 유배우자 어머니 그룹의 20.4%가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유배우자 어머니 그룹보다 무배우자 그룹이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건강 상태의 경우 건강 상태를 좋지 않다고 평가한 어머니의 29.8%, 보통이라고 평가한 그룹의 19.5%, 건강 상태를 좋다고 평가한 그룹 17.0%가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그룹이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기혼 성인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21.4%, 동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37.0%가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기혼 성인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 그룹이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가계 소득이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은 27.8%,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은 20.6%,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은 16.4%가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자원 이전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가계 소득이 적은 그룹의 경우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경우는 가계 자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은 23.1%,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이 24.3%,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15.9%로 나타났다. 가계 자산이 많은 그룹의 경우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자원 이전의 빈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인 자녀로부터 제공 받는 자원 이전

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 받는 비율(16.1%)보다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이전 받는 비율(22.3%)이 높았다.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 이전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교육 수준,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자녀와의 동거 여부, 가계 소득, 가계 자산)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 이전은 어머니의 취업 상태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0>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미혼 성인 자녀의 경제적 자원 이전 (n=2925)						기혼 성인 자녀의 경제적 자원 이전 (n=2063)							
어머니의 특성	범주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한다		전체		χ^2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한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연령	50세 미만	738	93.3	53	6.7	791	100	127.870*** (n=2909)	68	90.7	7	9.3	75	100	32.711*** (n=2056)
	50~59세	1323	84.0	252	16.0	1575	100		835	81.8	186	18.2	1021	100	
	60세 이상	381	70.2	162	29.8	543	100		695	69.5	263	27.6	960	100	
교육 수준	무학/초등	813	77.4	238	22.6	1051	100	66.204*** (n=2906)	945	75.2	312	24.8	1257	100	12.041** (n=2054)
	중등	651	84.1	123	15.9	774	100		373	82.2	81	17.8	454	100	
	고등이상	976	90.3	105	9.7	1081	100		278	81.0	65	19.0	343	100	
취업 상태	비취업	1104	81.1	258	18.9	1362	100	15.863*** (n=2909)	762	76.6	233	23.4	995	100	1.449 (n=2056)
	취업	1338	86.5	209	13.5	1547	100		836	78.8	225	21.2	1061	100	
혼인 상태	무배우자	338	74.8	114	25.2	452	100	33.327*** (n=2908)	294	70.3	124	29.7	418	100	16.544*** (n=2056)
	유배우자	2103	85.6	353	14.4	2456	100		1304	79.6	334	20.4	1638	100	
건강 상태	하	608	76.9	183	23.1	791	100	48.491*** (n=2909)	531	70.2	225	29.8	756	100	39.850*** (n=2056)
	중	545	83.2	110	16.8	655	100		396	80.5	96	19.5	492	100	
	상	1289	88.1	174	11.9	1463	100		671	83.0	137	17.0	808	100	
자녀와의 동거 여부	비동거	777	81.9	172	18.1	949	100	4.481* (n=2909)	1523	78.6	414	21.4	1937	100	15.761*** (n=2056)
	동거	1665	84.9	295	15.1	1960	100		75	63.0	44	37.0	119	100	
가계 소득	하	349	81.2	81	18.8	430	100	17.345*** (n=2803)	420	72.2	162	27.8	582	100	16.892*** (n=2002)
	중	1430	82.6	302	17.4	1732	100		948	79.4	246	20.6	1194	100	
	상	571	89.1	70	10.9	641	100		189	83.6	37	16.4	226	100	
가계 자산	하	384	83.3	77	16.7	461	100	15.124** (n=2493)	283	76.9	85	23.1	368	100	9.103* (n=1775)
	중	1223	81.8	273	18.2	1496	100		851	75.7	273	24.3	1124	100	
	상	477	89.0	59	11.0	536	100		238	84.1	45	15.9	283	100	

*p< .05 **p< .01 ***p< .001

(2)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의 차이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가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 이전 여부의 차이를 교차분석을 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의 제공받는 경제적 자원 이전에서는 미혼 성인 자녀의 연령과 취업 상태, 부모와의 동거 유무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경우는 미혼 성인 자녀의 나이가 20세에서 24세일 때가 5.2%, 25세에서 29세가 17.3%, 30세에서 49세가 27.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미혼 성인 자녀의 연령이 높은 그룹의 경우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미혼 성인 자녀가 비취업자인 경우에는 2.6%, 취업자인 경우에는 27.4%가 어머니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취업한 경우 경제적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의 제공받는 경제적 자원 이전에서는 기혼 성인 자녀의 성별, 연령, 만 6세 이하 자녀유무,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성 기혼 자녀의 19.6%, 여성 기혼 자녀의 25.6%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았다. 이것은 기혼 자녀의 경우 아들보다 딸이 어머니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제공할 빈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경우는 기혼 성인 자녀의 나이가 21세에서 29세일 때가 15.0%, 30세에서 34세가 20.5%, 35세에서 57세가 27.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기혼 자녀의 연령이 높은 그룹의 경우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의 자원 이

전을 제공받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기혼 성인 자녀가 있는 어머니 그룹의 20.0%,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가 있는 어머니 그룹의 24.6%가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만 6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는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 이전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성인 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의 실태를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 실태와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으로 나눠서 살펴 볼 수 있다.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 이전의 실태를 봤을 때 미혼 성인 자녀의 연령이나 취업 상태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 이전의 실태에서는 미혼 성인 자녀에게 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집단간 차이가 있었으며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이전 실태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자녀의 성별에서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만 6세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11>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미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n=2925)								
자녀의 특성	범주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한다		전체		X ²
		n	%	n	%	n	%	
성별 (n=2908)	남	1471	83.9	282	16.1	1753	100.0	.002
	여	970	84.0	185	16.0	1155	100.0	
연령 (n=2808)	20세~24세	909	94.8	50	5.2	959	100.0	160.858***
	25세~29세	958	82.7	200	17.3	1158	100.0	
	30세~49세	574	72.6	217	27.4	791	100.0	
취업 상태 (n=2909)	비취업	1294	97.4	34	2.6	1328	100.0	330.124***
	취업	1148	72.6	433	27.4	1581	100.0	
기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n=2063)								
자녀의 특성	범주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한다		전체		X ²
		n	%	n	%	n	%	
성별 (n=2056)	남	918	80.4	224	19.6	1142	100.0	10.510**
	여	680	74.4	234	25.6	914	100.0	
연령 (n=2051)	21세~29세	358	85.0	63	15.0	421	100.0	28.831***
	30세~34세	662	79.5	171	20.5	833	100.0	
	35세~57세	575	72.1	222	27.9	797	100.0	
만 6세 이하 자녀유무 (n=2056)	무	805	80.0	201	20.0	1006	100.0	6.230**
	유	789	75.4	257	24.6	1046	100.0	

*p< .05 **p< .01 ***p< .001

3.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어머니의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머니의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어머니의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2>과 같다.

분석 결과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가 $\chi^2 = 1093.236$, $p < .001$ 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와 관련된 변수는 연령,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및 건강 상태였으며,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이었다. 미혼 성인 자녀와 관련된 변수는 성별, 연령, 그리고 취업 상태였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증가한다. 이는 McGarry와 Schoeni(1995)의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취업 상태는 어머니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을 한 경우에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 경향성이 약 1.7배 증가한다($b=.576$ 이며 $p < 0.001$). 이는 김지경과 송은경(2004), 손병돈(1999)의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때 경제 활동을 할 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관되는 결과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미혼 성인 자녀에게 약 1.1배만큼 높게 자원 이전을 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109$, $p < 0.001$). 진재문(1999)의 연구에서 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에게 더욱 이전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가계 소득은 금액이 중위 60%에 속하는 어머니보다 하위 20%에 속하는

어머니일 경우 경제적 자원 이전 경향성이 낮았으며, 회귀계수(b)는 -.6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계 자산 변수의 경우에도 가계 자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어머니의 경우 중위 60%에 속하는 어머니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McGarry와 Schoeni(1995)의 연구에서 부모로부터 자녀로의 소득 이전의 가능성은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높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어머니의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와 관련된 변수는 성별 연령, 취업 상태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여 경제적 자원 이전 경향성이 낮았다($\exp(b)=.797$). 이는 김지경·송현주(2008)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아들일 경우 사적 소득 이전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전 받는 소득 금액에도 자녀가 아들일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대치되는 결과이다. 연령 변수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 이전 경향이 낮았다. 취업 상태는 유의수준 $\alpha=0.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녀가 취업을 했을 경우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보다 자원 이전 경향이 낮았다($b=-2.731, p<0.001$). 이는 김지경과 송은경(2004), 손병돈(1999)에서는 자녀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비취업자인 경우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표 12> 어머니의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 변수 (준거집단)		범주	경제적 자원 이전 (N=2925)		
			B	S.E.	odds Ratio
어머니의 특성	연령		.026†	.014	1.026
	교육 수준 (무학/초)	중등	-.132	.143	.877
		고등	.048	.145	1.049
	취업 상태 (비취업)	취업	.576***	.105	1.779
	배우자 유무 (무배우자)	유배우자	.677***	.153	1.968
	건강 상태		.109*	.053	1.115
	자녀와의 동거 여부 (비동거)	동거	-.095	.121	.910
	가계 소득 (중)	하	-.699***	.178	.497
		상	-.022	.128	.978
		무응답	-.136	.273	.873
가계 자산 (중)	하	-.504**	.157	.604	
	상	.138	.136	1.149	
	무응답	-.120	.158	.887	
미혼 성인 자녀의 특성	성별(여)	남	-.226*	.103	.797
	연령		-.057**	.018	.945
	취업 상태 (비취업)	취업	-2.731***	.127	.065
상수			-.389	.685	.678
-2 log likelihood(fitted)			2530.219		
Model Chi-square			1089.641***		

† p<.1 *p< .05 **p< .01 ***p< .001

2)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경제적 자원 이전의 모형 적합도는 $\chi^2 = 146.444$, $p < .001$ 으로 회귀 모형이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 수준과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와 가계 소득, 가계 자산이었으며, 기혼 성인 자녀의 특성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연령과 부모와의 동거 여부로 분석되었다.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 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연령에 있어,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때와 같이 McGarry와 Schoeni(1995)의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 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기혼 자녀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서 무학이나 초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에 비하여 교육 수준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졌을 경우 경제적 자원 이전의 경향성이 낮았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 이전을 하는 범주에 속할 확률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다수의 연구 결과(김순미·박미려, 2008; 진재문, 1999; Cox, 1987)가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는 대치되는 결과였다. 어머니의 취업 상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취업을 하지 않은 어머니보다 취업을 한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약 2.9배 높았다.($b=1.066$, $p < 0.001$) 이는 미혼 자

녀에게 자원 이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김지경과 송은경(2004), 손병돈(1999)의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때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관되는 결과다. 어머니가 유배우자 경우에 무배우자 집단보다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b=.778, p<0.01$).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자원 이전에 미치는 요인과 같이 가계 소득에 있어 중위 60%에 속하는 어머니에 비하여 하위 20%에 속하는 어머니가 경제적 자원 이전 경향성이 낮았으며($b=-.827, p<0.001$) 가계 자산 변수의 경우에도 가계 자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어머니의 경우 중위 60%에 속하는 어머니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McGarry와 Schoeni(1995)의 연구에서 부모로부터 자녀로의 소득 이전의 가능성은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높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흥미로운 결과는 가계 자산을 밝히고 싶지 않은 어머니가 가계 자산이 중위 60%에 속하는 어머니보다 기혼 성인 자녀에게 소득 이전을 하는 경향이 낮았다($b=-1.299, p<0.001$).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에 미치는 자녀와 관련된 변수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함께 살지 않는 기혼 성인 자녀보다 함께 살고 있는 기혼 성인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할 경향이 2.8배 이상 높았다($b=1.039, p<0.001$). 이는 성지미와 차은영(2001)의 동거할 경우 동일 공간을 공유하며 금전과 시간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해보았다. 미혼 성인 자녀와 기혼 성인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할 때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으로는 성인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어머니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특성으로는 연령과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 때, 취업자일 때, 배우자 유무일 때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은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보다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때에는 유의하였으나 기혼 성인 자녀에게 이전할 때는 유의하지 않은 특성으로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성인 자녀의 성별이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 자산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에는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때에는 유의하였으나 미혼 성인 자녀에게 이전할 때는 유의하지 않은 특성으로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 자녀와의 동거 여부와 가계 자산이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일 때 보다 중등이상일 경우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경향성이 낮았다. 또한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와 동거할 경우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 가계 자산을 밝히고 싶지 않는 어머니가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적 자원 이전 (N=2063)			
독립 변수 (준거집단)		범주	B	S.E.	odds ratio
어머니의 특성	연령		.047†	.025	1.048
	교육 수준 (무학/초)	중등	-.637**	.220	.529
		고등	-.860**	.290	.423
	취업 상태 (비취업)	취업	1.066***	.183	2.903
	배우자 유무 (무배우자)	유배우자	.778**	.250	2,177
	건강 상태		-.091	.077	.913
	자녀와의 동거 여부 (비동거)	동거	1.039***	.287	2,826
	가계 소득 (중)	하	-.827***	.226	.437
		상	.231	.244	1.260
		무응답	.330	.593	1.390
	가계 자산 (중)	하	-.590*	.256	.554
		상	.117	.220	1.124
무응답		-1.299***	.370	.273	
기혼 성인 자녀의 특성	성별(여)	남	-.261	.160	.770
	연령		-.025	.024	.976
	만 6세 이하의 자녀 유무 (무)	유	-.002	.162	.998
상수			-4.593***	1.223	.010
-2 log likelihood(fitted)			1158.195		
Model Chi-square			146.444***		

† p<.1 *p< .05 **p< .01 ***p< .001

3) 미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미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4>과 같다.

분석 결과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가 $p < .001$ 로 회귀 모형이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회귀분석을 통해 미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와 관련된 변수는 연령, 취업 상태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으로 분석되었다. 미혼 성인 자녀와 관련된 변수는 취업 상태와 어머니와의 동거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경향성이 높아진다($b = .044$, $p < 0.01$). 이러한 결과는 Cox(1987)의 연령이 높으면 자녀로부터 이전 소득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와 McGarry와 Schoeni(1995)의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어머니의 취업 상태에서는 김지경과 송은경(2004), 손병돈(1999)에서는 부모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비취업자인 경우에는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같이 취업한 경우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보다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는 경향성이 낮았으며($b = -.337$, $p < 0.01$), 배우자 유무에서도 유배우자 경우가 무배우자 경우보다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경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b = -.506$, $p < 0.001$). 손병돈(1999), 김순미와 박미려(2008), 김희삼(2008)에서 부모가 배우자가 없을 때 자녀로부터 자원 이전을 제공받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건강이 좋다고 평가할수록 자원을 받을 경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김순미와 박미려(2008)의 노령이나 질병으로 경제적 자원 이전

에 대한 욕구가 큰 부모일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성인 자녀가 동거하지 않는 미혼 성인 자녀보다 약 1.4배 정도 높게 자원 이전을 제공할 경향이 높았다($b=.385, p<0.01$). 이는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지미와 차은영(2001)의 동거할 경우 동일 공간을 공유하며 금전과 시간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가계 소득의 경우 가계 소득이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에 비하여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받을 경향성이 낮아 McGarry와 Schoeni(1995)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로부터 소득 이전을 받을 확률은 자산과 소득이 낮은 부모가 더 높다는 결과를 지지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가계 자산 변수에 있어서는 회귀계수(b)가 $-.344$ 로 나타났는데, 가계 자산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보다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경제적 자원 이전을 받을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McGarry와 Schoeni(1995)의 연구와 대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계 자산을 밝히고 싶지 않은 그룹도 가계 자산이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보다 경제적 자원을 받을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성인 자녀의 특성 변수에서는 미혼 성인 자녀의 취업 상태와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미혼 성인 자녀의 취업 상태에서는 회귀계수(b)가 2.419로 유의수준 $\alpha=0.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취업을 한 미혼 성인 자녀의 경우 취업하지 않은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어머니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약 11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김지경과 송은경(2004), 손병돈(1999)에서는 자녀가 경제 활동을 할 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지만 고선강(2005)의 취업을 한 성인 자녀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표 14> 미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적 자원 이전 (N=2925)			
독립 변수 (준거집단)		범주	B	S.E.	odds Ratio
어머니의 특성	연령		.044**	.014	1.045
	교육 수준 (무학/초)	중등	-.082	.141	.921
		고등	-.149	.159	.861
	취업 상태 (비취업)	취업	-.337**	.118	.714
	배우자 유무 (무배우자)	유배우자	-.506***	.142	.603
	건강 상태		-.187**	.057	.829
	자녀와의 동거 여부 (비동거)	동거	.385**	.122	1.470
	가계 소득 (중)	하	-.334*	.159	.709
		상	-.243	.160	.785
		무응답	-.065	.352	.938
	가계 자산 (중)	하	-.244	.161	.783
		상	-.355*	.171	.701
무응답		-.340†	.186	.712	
미혼 성인 자녀의 특성	성별(여)	남	-.101	.119	.904
	연령		.014	.017	1.014
	취업 상태 (비취업)	취업	2.419***	.194	11.237
상수			-4.965***	.724	.007
-2 log likelihood(fitted)			2069.123		
Model Chi-square			488.986***		

† p<.1 *p< .05 **p< .01 ***p< .001

4) 기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기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분석 결과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가 다른 모형의 적합도와 같이 $p < .001$ 로 나타나 회귀 모형이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을 통해 기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와 관련된 변수는 연령, 배우자 유무와 건강 상태, 자녀와의 동거 여부와 가계 자산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기혼 성인 자녀와 관련된 변수는 성별과 만 6세 이하의 자녀 유무와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경향성이 높아졌다($b = .066$, $p < 0.001$). Cox(1987), Secondi(1997) 윤선영(2008)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부모가 연령이 높으면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병돈(1999), 김순미과 박미려(2008), 김희삼(2008)의 연구 결과에서 배우자가 없을 때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원 이전을 제공받는 경향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연구에서도 유배우자 어머니는 무배우자 어머니보다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건강할수록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 이전받을 경향성이 낮아지는 것($b = -.267$, $p < 0.001$)으로 나타나 김순미·박미려(2008)의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적 자원 이전에 대한 욕구가 큰 부모일수록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를 지지하였다.

가계 자산 변수에 있어서는 가계 자산이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에 비하여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경제적 자원 이전을 받을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303, p< 0.1$).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에 비하여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경제적 자원 이전을 받을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371, p< 0.05$).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소득 이전을 받을 확률은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산과 소득이 낮은 부모가 더 높다는 McGarry와 Schoeni(1995)의 연구결과와는 결과와는 다르다. 경제적 계층이 최상 계층을 기준으로 중간 계층의 부모들이 경제적 욕구의 미충족 상태이며 자녀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간 계층이 가장 경제적 이전의 수혜를 많이 받는다는 손병돈(199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기혼 성인 자녀의 특성 변수에서는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김지경과 송현주(2008)의 자녀가 아들일 경우 사적 소득 이전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와는 반대로 기혼 성인 자녀가 여자인 경우에 비하여 남자인 경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b=-.195, p< 0.1$). 기혼 성인 자녀의 만 6세 이하 자녀의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회귀계수(b)가 .466이었고 유의수준 $\alpha=0.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약 1.5배 높게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지미와 차은영(2001)의 연구에서 세대간 이전 소득에서 있어 동거할 경우 동일 공간을 공유하며 금전과 시간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한 바와 같이 .부모와 동거하는 기혼 성인 자녀가 동거하지 않는 기혼 성인 자녀보다 약 1.8배 정도 높게 자원 이전을 제공할 경향이 높았다($b=.627, p<0.01$).

어머니가 성인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미혼 성인 자녀와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자원 이전을 받을 때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으로는 성인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어머니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특성으로는 배우자 유무, 자녀와의 동거 여부, 건강 상태와 가계 자산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배우자 유무가 무배우자일 때에 비하여 유배우자일 때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경향성이 높았다. 또한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한 어머니들이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을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어머니가 성인 자녀와 동거할 경우 경제적 자원을 제공 받을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계 자산은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보다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 이전을 받을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때에는 유의하였으나 기혼 성인 자녀에게 이전할 때는 유의하지 않은 특성으로는 어머니의 취업 상태,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와 유배우자 경우, 그리고 가계 소득이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보다 하위 20% 속하는 경우나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 자원 이전을 받을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 이전을 받을 때에는 유의하였으나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이전받을 때에는 유의하지 않은 특성으로는 어머니의 가계 자산과 자녀의 성별이다. 어머니의 가계 자산이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보다 하위 20% 속하는 경우와 기혼 성인 자녀가 아들인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기혼 성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적 자원 이전 (N=2063)			
독립 변수 (준거집단)	범주	B	S.E.	odds Ratio	
어머니의 특성	연령	.066***	.018	1.068	
	교육 수준 (무학/초)	중등	-.141	.148	.869
		고등	.043	.172	1.044
	취업 상태 (비취업)	취업	.039	.117	1.040
	배우자 유무 (무배우자)	유배우자	-.251†	.137	.778
	건강 상태		-.266***	.056	.766
	동거 여부 (비동거)	동거	.627**	.219	1.872
	가계 소득 (중)	하	.159	.129	1.172
		상	-.220	.208	.802
		무응답	.288	.362	1.334
	가계 자산 (중)	하	-.303†	.156	.739
		상	-.371*	.187	.690
		무응답	-.285	.183	.752
기혼 성인 자녀의 특성	성별(여)	남	-.195†	.112	.823
	연령		.024	.017	1.025
	만 6세 이하의 자녀 유무 (무)	유	.466***	.117	1.593
상수		-5.079***	.906	.006	
-2 log likelihood(fitted)		2036.346			
Model Chi-square		134.547***			

† p<.1 *p< .05 **p< .01 ***p< .001

5) 만 6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과 돌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만 6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과 돌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여부와 돌봄 서비스 제공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다.

분석 결과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가 다른 모형의 적합도와 같이 $p < .001$ 로 나타나 회귀 모형이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와 관련된 변수는 어머니의 취업 상태와 배우자 유무,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회귀계수(b)가 1.391로 $\alpha = 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취업을 한 어머니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때 경제 활동을 할 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진 김지경과 송은경(2004), 손병돈(1999)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유배우자 어머니가 무배우자 어머니보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 -.593, p < 0.1$). 가계 소득은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에 비하여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b = -.811, p < 0.05$). 가계 자산의 경우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에 비하여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 = -.729, p < 0.1$). 앞서 밝힌 바와 같

이 손병돈(1998)의 경제적 계층이 중간 계층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경제적 이전의 수혜를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에 비하여 가계 자산을 밝히고 싶지 않은 집단에서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2.025, p<0.01$).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어머니와 관련된 변수로 취업 상태 여부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의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만 6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볼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b=.1.135, p< 0.001$). 또한 성지미와 차은영(2001)의 연구에서 동거할 경우 동일 시간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한 바와 같이 어머니는 부모와 동거하는 기혼 성인 자녀에게 만 6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볼 경향성이 약 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4.057, p< 0.001$).

<표 16> 만 6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기혼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과 돌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 변수 (준거집단)		범주	경제적 자원 이전 (n=1051)			돌봄 서비스 제공 (n=1051)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어머니의 특성	연령		.027	.033	1.027	-.022	.026	.978
	교육 수준 (무학/초)	중등	-.147	.269	.863	.312	.216	1.366
		고등	-.327	.373	.721	-.120	.268	.887
	취업 상태 (비취업)	취업	1.391***	.269	4.018	-1.135***	.199	.321
	배우자 유무 (무배우자)	유배우 자	.593†	.338	1.810	-.028	.244	.972
	건강 상태		-.112	.109	.894	.136	.093	1.145
	자녀와의 동거 여부 (비동거)	동거	1.160**	.380	3.189	4.053***	.436	57.571
	가구 총소득 (중)	하	-.811*	.327	.444	-.066	.226	.936
		상	.173	.323	1.189	-.091	.309	.913
		무응답	-17.347	7829.086	.000	-.379	.631	.685
	가계 자산 (중)	하	-.729†	.400	.482	.172	.275	1.188
		상	.159	.283	1.173	.215	.261	1.240
		무응답	-2.025**	.733	.132	.215	.298	1.240
기혼 성인 자녀의 특성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	성별(여)	남	-.124	.220	.883	-.110	.188	.896
	연령		.020	.036	1.021	.004	.031	1.004
상수			-5.103**	1.718	.006	-.559	1.370	.572
-2 log likelihood(fitted)			606.847			822.449		
Model Chi-square			87.173***			226061***		

† p<.1 *p< .05 **p< .01 ***p< .001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자원 이전 및 손자녀의 돌봄 서비스의 제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미혼 성인 자녀, 기혼 성인 자녀와의 자원 이전 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성가족패널자료의 1차년도(2007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어머니와 성인 자녀의 경제적 자원과 돌봄 서비스 이전 결정에 무엇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성인 자녀와 자원 교류를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취업 상태,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성인 자녀와의 동거 여부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연령이 높을수록 성인 자녀와 경제적 자원 교류를 활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연령이 성인 자녀와의 경제적 자원 교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윤선영, 2008; 김지경·송은경, 2004; Secondi, 1997; McGarry & Schoeni, 1995; Cox, 1987).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연령이 높을수록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할 때에도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아닌 가구주의 연령이 기준이 되었으나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어머니의 연령이 높으면 배우자의 연령도 높다

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연령과 더불어 어머니의 취업 상태는 자원 이전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한 상태일 경우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높았다. 경제적 자원을 받는 쪽에서의 취업 상태가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쳤는데, 어머니는 미혼 성인 자녀가 취업했을 때 경제적 자원을 미혼 성인 자녀에게 이전할 경향성이 낮았다. 이와는 반대로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을 경향성이 높았다. 이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가 경제 활동을 하는 부모에 비하여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손병돈(1998)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취업한 어머니가 만 6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볼 경향성은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때와는 반대로 낮았다. 성지미와 차은영(2001)의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 노인과의 동거가 자녀 돌보기와 가사 노동시간을 제공받아 결혼할 딸의 취업노동시간에 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여성 노인의 취업 상태가 변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취업과 일하는 시간과 돌봄 노동의 시간은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취업 상태에 있는 어머니는 취업하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경향성이 낮은 것은 손자녀를 돌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가 유배우자일 때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무배우자일 때에는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생존형태는 많은 연구들과 방향성을 같이 한다. 자녀들이 노인 부부 가구보다 아버지나 어머니 혼자 사는 가구에 소득 이전을 더 많이 한다는 손병돈(1999)의 연구 결과와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의 경우 경제적 자원을 수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김순미와 박미려(200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김희삼(2008)의 연구 결과와 같이

자원 이전에 있어 이타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타적 동기가 작용하는 또 하나의 어머니의 특성은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 상태다. 어머니가 스스로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할수록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높았으며,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경향성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령이나 질병으로 경제적 이전에 대한 욕구가 큰 부모일수록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자원 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김순미·박미려(200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진재문(1999)과 김희삼(200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부모 자녀간의 동거는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지미와 차은영(2001)의 부모와 성인 자녀가 동거할 경우 동일 공간을 공유하며 금전과 시간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한 것과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만 6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는 어머니가 자녀와 동거할 경우 동거하지 않는 경우보다 약 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더 많이 교류하는 것인지 자원을 더 많이 교류하고자 하는 요구에 의해서 동거하는가에 대한 전후의 인과관계는 파악할 수 없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부모 자녀간 자원 이전이 활발하다고 밝힌 구인회와 손병돈(2005), 김지경과 송현주(2008)의 연구 결과와도 분석하는 대상이 일치하지 않지만 부모 자녀간의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자원 이전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일관되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특성 중 본 연구에서 기존의 선행 연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온 요인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다.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어머니가 중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어머니에 비하여 기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x(1987)와 진재문(1999), 김순미와 박미려(2008) 등의 결과에서 자원 제공자의 학력이 높을

수록 자원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과 소득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어머니의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으면 기혼 성인 자녀의 그것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는 김희삼(2009)에 의하면 고도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더 많은 상위 직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도 교육을 통해 이런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었으나 사교육시장의 심화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그대로 세습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낮으면 기혼 성인 자녀의 경제적 자원 이전에 대한 욕구가 클 것이고 이타적 동기가 작용하여 자원 이전의 경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통계청의 200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취업률을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30대 중반 이후부터 중졸 이하의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고학력의 기혼 여성에 비해서 높다는 결과가 있었다. 교육 수준과 다음에서 설명할 취업 상태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도 주목할 만 결과라고 생각된다.

둘째, 어머니의 취업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결과는 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이 남성인 가구주가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데 핵심 요인으로 파악하고 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부모의 특성으로 대체하였다. 가구주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특성도 자원 이전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취업 상태나 취업 상태와 관련된 특성인 자산과 소득으로는 남성 가구주의 배우자인 어머니의 취업 상태를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 이전에 대한 연구 시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도 비중 있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병돈(1999)의 부모 부양의 동기와 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특성 뿐 아니라, 부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수를 측정

할 때 부모의 연령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값을 이용하고 부모의 퇴직 여부를 부모 한 명이라도 근로 소득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구분하는 등 부모 양측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나,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따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경제적 자원을 포함하여 돌봄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부모와 자녀가 수혜자인 동시에 제공자가 될 경우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어머니와 성인 자녀가 자원 교류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인 자녀의 성별과 미혼 성인 자녀의 취업 상태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미혼 성인 자녀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보다 남자인 경우에, (만 6세 이하의 손자녀가 있을 때) 기혼 성인 자녀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보다 남자인 경우에 경제적 자원 이전을 제공할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때에도 기혼 성인 자녀가 여자보다 남자인 경우 이전의 경향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자녀가 아들일 경우보다 딸일 경우 자원을 교류할 경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손병돈(1999)의 장남일 때 우리 사회에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부양 의무가 소득 이전과 대체관계일 수 있고 효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간 소득 이전에 성별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나타났다. 손병돈(1999)의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장자에게 지워지는 부양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한 해석이며, 성별이 가족간 소득 이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과거에 비해 아들보다는 딸이 경제적 자원 이전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가 1년 동안의 일상적 경제적 자원 이전을 제공했다는 점은 아들보다는 딸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 경향성이 높았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 상태가 경제적 자원 이전에 유의한 요인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성인 자녀의 취업 상태도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료의 특성상 미혼 성인 자녀의 취업 상태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미혼 성인 자녀가 취업한 경우에 어머니는 미혼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낮았으며,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경향성은 반대로 높았다. 어머니는 미혼 성인 자녀가 미취업 상태일 경우 경제적 요구가 더 높을 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경향성이 높고, 자녀가 취업했을 때에는 수혜를 받을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환적 배분 기준을 적용하자면 어머니가 자녀가 취업된 후 자원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여겨 취업되기 전 자원을 이전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자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취업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타적 분배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재정 관련 변수가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의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에 비하여 성인 자녀와 경제적 자원 교류를 할 경향성이 낮았다. 가계 소득이 낮고 가계 자산이 적은 경우에 성인 자녀에게 이전할 경제적 자원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경향성이 낮은 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타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소득과 자산이 적은 경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경향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측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손병돈(1999)의 연구에서 소득을 상실한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와 고선강(2002)의 연구에서 부모의 소득이 높은 경우에 낮은 경우에 비하여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을 확률이 낮은 결과, 그리고 김희삼(2008)의 연구에서 부모의 가계 소득과 가계 자산이 자녀가 소득 이전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모두 이타적 동기에서 자원을 이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미혼 성인 자녀가 어머니에게 경제적 자

원 이전을 할 때 가계 자산이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에 비하여 자원을 이전받을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를 지지하고 있지만, 가계 소득이 낮거나 가계 자산이 적은 경우에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을 경향성이 낮은 것은 선행 연구와 배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와 상호교류하기보다 한 방향으로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가구가 이전을 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의 상황에 있다면 최소한의 자원만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원 이전의 유형이 자원 이전 액수에 부적절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한 김지경과 송은경(2004)와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계 소득이 낮거나 가계 자산이 적은 경우에는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Cox(1987)의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대감에 근거하여 자원 이전 행동을 한다고 설명한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교환 이론에 의한 동기로 자원 이전을 한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어머니는 가계 자산이 중위 60%에 속하는 그룹에 비하여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에서 교환 이론에 의한 동기로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경향성이 낮았으나, 기혼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을 때에는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과 마찬가지로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도 그 경향성이 낮은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손병돈(1998)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상태가 중간 계층의 부모들이 경제적 욕구의 미충족 상태에 있는데 반해, 자녀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간 계층이 가장 소득을 많이 받고 최상 계층, 최하 계층의 부모 순으로 소득을 이전받는다고 하였다. 가계 자산이 중위 60%에 속하는 어머니 그룹보다 하위 20%에 속하는 그룹과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이 자녀

로부터 자원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가족간 소득 이전에 있어 중간 계층의 부모들에게 주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손병돈(199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분석하여 여성의 특성이 자원 이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과 어머니의 자원 이전 행동에 미치는 요인들을 자원의 제공자와 수혜자 양쪽 측면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연구 결과를 통해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 자원 이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할 때 가구주 뿐 아니라 다른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 고려해야할 다양한 변인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밝혔으나,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부족함으로 인해 체계적인 모형을 구축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 수혜자와 제공자 양측의 특성을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각각의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특히 자녀의 자산과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자원 이전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는 교환이론과 이타주의론으로 자원 이전 동기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조사 대상자의 최근 일 년 동안의 자원 이전 실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자원 이전 행동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큰 규모의 자원 이전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패널자료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 이전과 돌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자원의 종류에 따라 미치는 요인이 각기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의 세대간 자원 이전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선행 연구에서 통념상 가구 단위의 데이터를 조사하여 가구주가 모든 특성을 대표한다고 하여 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만을 자원 이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 역시 자원 이전이 가정의 의사결정 주도권이 여성이 가진다고 하여 여성의 특성만을 고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중 여성이나 가구주의 배우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도 가구주의 특성과 같이 자원 이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밝혔으나 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배우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비교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런 연구의 제한점이 보완된다면 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자원 이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강이수·신경아(2001). 여성과 일 : 한국여성노동의 이해, 한국여성학회지, 175-177 1226-3117
- 고선강(2002). 노부모의 금전이전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2), 53-64.
- 고선강(2005).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87-195.
- 고선강(2008).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209-229.
- 구인회·손병돈(2005). 연구논문 :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1990년대 후반기의 변화 추이와 변화 요인. 한국노년학, 25(4), 35-52.
- 김경신(1993). 가족학의 이론적 관점과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31(1), 137-151.
- 김기덕·손병돈(1995). 특집 : 소득분배형태의 변화추세 ; 1966-1992년 : 1982 - 92 년간 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변화 추세 - 소득원천별 , 사회보장수혜 , 이전 소득 , 조세부담. 사회복지연구, 6(0), 91-115.
- 김두섭·박경숙·이세용(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55-89.
- 김순미·박미려(2008).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 및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14.
- 김양희·전세경(1989).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25-42.

- 김지경(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따로 사는 부모가구와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김지경·송현주(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보장연구, 24(3), 77-98.
- 김지경·송은경(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김지연(2006). 성인자녀와 부모간 경제적 자원교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 김희삼(2008).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 30(1), 71-130.
- 김희삼(2009).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현황과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정책포럼자료.
- 문숙재·김지연.(2006). 소득계층에 따른 경제적 자원교류 결정 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329-329.
- 박은아(1994). 주부의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관리행동.
- 박재홍(1991). 한국사회의 노인문제. 한국사회학, 25, 1-19.
- 배지희·노상경·권경숙(2008).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 현황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379-410.
- 배진희(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29, 67-94.
- 배희선(1998).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백경숙·김영란(2006). 손자녀 양육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3), 109-128.
- 성지미·차은영(2001). 한국노동패널 특집 : 세대간 동거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노동경제논집, 24(1), 97-124.

- 손병돈(1997). 가족간 소득이전 행위에 관한 연구. 상황과 복지, (2), 261-267.
- 손병돈(1999). 부모 부양의 동기와 재분배 효과 : 가족간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9(2), 59-78.
- 손병돈(1998). 가족간 소득이전 결정용인의 계층간 비교. 사회복지연구, 11(0), 79-106.
- 송은경(2005). 성인자녀와 비동거 부모간의 경제적 자원교류 행동에 관한 분석
- 심영숙·서영미(1999).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돌보기 실태. 노인간호학회지, 1(2), 203-212.
- 윤선영(2008). 사적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2002) : 가정관리학. 신정.
- 정기원(2001). 노부모와 별거 성인자녀와의 가족유대: 정서적 지원에 대한 교환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24(1), 123-148.
- 정민자(1984).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 정의신(2008). 계층별 사적이전에 대한 분석. 사회경제평론, 191-223.
- 조영희(1991). 논문편 : 자원적정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41-251.
- 진재문(1999). 사회보장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 분석. 사회복지연구, 13(1), 167-199.
- 최유호(2004). 세대별 부양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간의 관계.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
- 한경혜·홍진국(2000). 세대간 사회적 지원의 교환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가족과문화(가족학논집), 12(2), 55-80.

- 한민아(2004). 세대간 지원교환관계와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지수 · 홍공숙(2007). 노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자녀의 시장노동 참여 및 참여 시간 결정 요인: 기혼여성자녀와 노부모와의 시간자원 이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6), 61-75.
- 보건사회연구원(2004) 2004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보고서
- 통계청(2006)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2008) 2008 사회조사 결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Cox, D.(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3), 508.
- Daly, M. & Rake, K (2002) Gender, Household and Individual Income in France, Germany, Italy, the Netherlands, Sweden, the USA and the UK. LIS working paper no. 332.
- Gross, I. H., Crandall, E. W. & Knoll, M. M.(1980)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4th Ed.), Englewood Cliff, N. J.; Prentice-Hall, Inc.
- McGarry, K. & Schoeni, R. F.(1995). Transfer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4), S184-S226.
- McCubbin, H., Wilson, L & Patterson, J.(1979).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FILE), St. Paul,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Morey, L. C.
- Secondi, G.(1997). Private monetary transfers in rural china: Are families altruistic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3(4), 487.

Turner, Jonathan H.(1982).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Third Edition. Homewood : The Dorsey Press.

ABSTRACT

A Study on Resources Transfers Between Mothers and Adult Children

Lee, Yun jeong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onditions of transfers between mothers and adult children, analyzes the differences in such transfers in relation to socio-demographic traits and distinguishes the influencing factors. In terms of determinants of resource transfers, the findings of cross tabulations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2007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an and Families" data extracted from the sample 3,719 mothers with adult childre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financial transfers and economic resources on financial transfers, grandchild care giving, between mothers and adult

children.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as for the conditions of transfers between mothers and adult children, regarding the differences in the economic transfer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traits, 31.7% of the mothers with unmarried adult children transfer economic resources to their unmarried adult children and 9.7% of the mothers with married adult children transferred economic resources to their married adult children. 19.9% of mothers with grandchildren under the age of 6 take care of their grandchildren. 16.1% of mothers get economic resources from their unmarried adult children and 22.3% of mothers get economic resources from their married adult children. It shows that the mothers tend to transfer economic resources to their unmarried adult children and get more economic resources from their married adult children.

Mothers surveyed, transfer economic resources to their unmarried adult children more when the mothers don't get economic resources from their unmarried adult children. However the transfer frequency of economic resources to their married adult children is higher when they get economic resources.

Second, regarding the differences in economic transfer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trai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ther's socio-demographic traits when the mothers transfer the economic resources to their adult children.

Mothers' financial transfers to unmarried adult children has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other's age, educational level, employment status, marriage status, physical condition, living with unmarried adult children or not, family income and family assets. Mothers' financial transfers to married adult children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thers' educational level, employment status, marriage status, family income and family asse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thers' socio-demographic traits where adult children transfer economic resources to their mothers. Unmarried adult children's financial transfers to their mothers has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other's age, educational level, employment status, marriage status, physical condition, family income and family assets. Married adult children's financial transfers to mothers has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ther's age, educational level, marriage status, physical condition, family income and family assets except for their employment statu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ther's employment status. It's different from the result of unmarried adult children's financial transferring.

Regarding the differences between financial transferring and not transferring to unmarried adult children by parent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trait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unmarried adult children's age and employment status. Regarding the differences between financial transferring and not transferring to married adult children by parent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rried adult children's gender, age, having children under six years of age or not, living with their parents or not.

Third, this study analyzed factors influencing intergenerational transfers of resources between mothers and adult children. On mothers' financial transferring to their adult children, it has a high frequency when mothers are old, unemployed, with spouse, healthy, and when adult children's are female, young, unemployed, and when mothers live with adult children. On the other hand if family income and assets are lower, there is a lower tendency to transfer to children by mothers. On children's financial transferring to their mothers, there is a higher frequency when mothers are old, unemployed, spouseless, and not healthy, with grandchildren younger than 6 years of age, living with adult children. Family income and assets act reversely when mothers get support from unmarried children and when they get support from married children. If mothers with grandchildren under the age of 6 are unemployed and living with their adult children, the tendency of care giving are higher.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mother's socio-demographic traits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this transa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Mother's socio-demographic traits that are the same as householders' trait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economic transfers. Precedence research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focused on male's householder traits. These ideas are based on males being the bread-winners, are financial transfers' main agents. So if we study resources transfers, we have to consider the mother's socio-demographic traits as being more important.

자료 분석에 사용된 '2007년 1차 여성가족패널조사 설문지'의 문항

1. 종속변수

1) 성인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 유무

■ 문9. __님이나 __님의 남편은 이 자녀에 대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P01222**

- ① 예 → 9-1로 가십시오.
- ② 아니오 → 10으로 가십시오.

2)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여부

■ 문11. __님은 그 아이를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돌보고 있습니까? **P01240**

- ① 예 → 11-1로 가십시오.
- ② 아니오 → [22. 본인의 부모님과의 관계]로 가십시오.

3) 성인 자녀에게 받는 경제적 자원 유무

■ 문10. __님이나 __님의 남편은 이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P01224**

- ① 예 → 10-1로 가십시오.
- ② 아니오 → 11로 가십시오.
- ③ 모른다 → 11로 가십시오.

2. 독립변수

1)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연령

□ 문1-4. 이 분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 ❖ 양력, 음력 여부를 모를 경우 ③ 모르겠다에 표시하고 생년월을 응답해 주십시오.
- ❖ 호적상 생년월일과 실제 태어난 날이 다를 경우 실제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H0124A_A1~A9** ① 양력 ② 음력 ③ 모르겠다)

⇒ **H0124B_A1~A9** 년 **H0124C_A1~A9** 월

(2) 학력

■ 문1. __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재학/휴학/중퇴/수료 포함) **P0126**

- ① 무학 → [3. 첫 직장경험] 으로 가십시오.
- ② 초등학교(국민학교)
-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실업계)
- ⑤ 고등학교(인문계)
- ⑥ 2·3 년제 대학(전문대학, 기능대학 포함)
- ⑦ 4년제 대학(4년제 단과대학, 5·6년제 대학 포함)
- ⑧ 대학원 석사과정
- ⑨ 대학원 박사과정

(3) 취업상태

□ 문1-6. 이 분은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자영업이나 농림어업축산업 포함) **H0126A_A1~A9**

※ 조사 대상 기간(조사 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입을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한 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매춘, 도박과 같은 법률에 위배되는 비생산적 활동이나 법률에 의한 강제적인 노역이나 봉사 활동, 경마·경륜·카지노 등과 같은 사행성 게임, 개인 자격의 증권·선물 거래 등 투자활동을 한 것은 일자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가족이나 가구원이 경영하는 사업 체에서 일하면서 그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경우는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일주일 간 일한 시간이 총 18시간이 안되더라도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 예 → 1-6-1로 가십시오.
- ② 아니오 → 1-7로 가십시오.

- 문2. 귀택에서는 금년 상반기(2007년 1월~6월) 동안 금융소득이 있었습니까? 금년 상반기 동안의 총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H0136A**

❖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다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지는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있었다 ⇨ 금년 상반기 총액 **H0136B** **H0136C** 만원
 ② 없었다

- 문3. 귀택에서는 금년 상반기(2007년 1월~6월) 동안 부동산 소득이 있었습니까? 금년 상반기 동안의 총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H0137A**

❖ 부동산 소득이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있었다 ⇨ 금년 상반기 총액 **H0137B** **H0137C** 만원
 ② 없었다

- 문4. 귀택에서는 금년 상반기(2007년 1월~6월) 동안 다음과 같은 사회보험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H0138**

- ① 있었다 → 4-1로 가십시오.
 ② 없었다 → 5로 가십시오.

《사회보험의 종류》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기타
① 노령연금 ② 장애연금 ③ 유족연금 ④ 사망일시금 ⑤ 반환일시금	⑥ 사학연금 ⑦ 공무원연금 ⑧ 군인연금 ⑨ 반환일시금	⑩ 휴업급여 ⑪ 장애연금 ⑫ 유족급여	⑬ 보훈연금 ⑭ 실업급여	⑮ 기타 ⑯ 특례노령연금

□ 문4-1. 받으신 사회보험의 종류와 액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금년 상반기 동안의 총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 ❖ 사회보험을 한 가지 이상 받은 경우 <<사회보험 종류>>에서 번호를 골라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액수는 각 종류별로 합산한 액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 ❖ 면접원은 2007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상반기 동안 받은 사회보험을 계산하여 주십시오. 만일 공무원 연금을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받았다면 총액은 ‘100만원×6개월 = 600만원’ 이 됩니다.
- ❖ 일시불로 받은 경우는 받은 액수 전체를 응답해 주십시오.
- ❖ 특수지역연금이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직역(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사회보험 종류	액 수
(1) H0139M_1~16	금년 상반기 총액 H0140_1~16 만원
(2)	금년 상반기 총액 _____ 만원
(3)	금년 상반기 총액 _____ 만원

■ 문5. 귀택에서는 금년 상반기(2007년 1월~6월) 동안 이전소득이 있었습니까? 금년 상반기 동안의 총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H0141A**

- ❖ 이전소득이란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 친지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없이 받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경로우대교통비, 동사무소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등이 이에 속합니다.

① 있었다 ⇨ 금년 상반기 총액 **H0141B** 만원
 ② 없었다

- 문6. 귀댁에서는 금년 상반기(2007년 1월~6월) 동안 기타소득이 있었습니까? 금년 상반기 동안의 총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H0142A**

❖ 기타소득이란 보험금 지급(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을 들었다가 해약하고 받은 돈)이나 퇴직금(위의 사회보험에서 받은 연금 제외), 복권 탄 돈, 증여 또는 상속과 같이 위의 다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 ① 있었다 ⇨ 금년 상반기 총액 **H0142B** 만원
- ② 없었다

(8) 가계 자산

- 문1. 귀댁에서는 현재 살고 계신 집 이외에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주택이나 건물, 축사, 임야, 토지 등)이 있으십니까? **H0146A**

- ① 예 → 1-1로 가십시오.
- ② 아니오 → 2로 가십시오.

□ 문1-1. 이 부동산들의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여러 개일 경우 모든 소유 부동산의 합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부동산 총액에서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총액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H0146B 만원

- 문2. 귀댁에서는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내고 빌려 쓰고(임차하고) 계시는 부동산(주택이나 건물, 축사, 임야, 토지 등)이 있으십니까? **H0147A**

- ① 예 → 2-1로 가십시오.
- ② 아니오 → 3으로 가십시오.

□ 문2-1. 부동산의 주인에게 낸 보증금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이 여러 개일 경우 모든 임차 부동산의 보증금 총합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H0147B 만원

■ 문3. 귀택에는 토지나 건물 이외에 다음과 같은 종류의 유형자산이 있으십니까? 그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시세를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소유 여부	금 액
(1)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H0148A	총 H0148B 만원
(2) 농기계, 농기구	① 예 ② 아니오 H0149A	총 H0149B 만원
(3) 임업용 기계, 기구	① 예 ② 아니오 H0150A	총 H0150B 만원
(4) 선박, 어로용 장비	① 예 ② 아니오 H0151A	총 H0151B 만원
(5) 가축, 가금류	① 예 ② 아니오 H0152A	총 H0152B 만원

■ 문4. 귀택은 다음과 같은 금융자산(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 보험 등)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있다면 그 총액은 얼마입니까?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시세를 응답해 주십시오.

- ❖ 지금까지 낸 돈(불입총액)을 써 주십시오.
- ❖ 불입총액을 정확히 모를 경우 매월 불입금과 불입한 기간을 곱하여 불입총액을 계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전월세 보증금 등은 금융자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그를 통해 발생한 이자 소득은 자산에 포함합니다.
- ❖ 펀드는 주식으로 분류되며, 방카슈랑스는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됩니다.
- ❖ 저축성 보험은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 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은 보험입니다. 예로 새가정복지보험, 노후설계연금보험, 노후복지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계약 만기 때 지급되는 급부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 불입총액은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 목	소유 여부	금 액
(1) 은행예금 (정기 예·적금, 저축성 예금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H0153A	현재 총액 H0153B 만원
(2) 주식, 채권, 신탁	① 예 ② 아니오 H0154A	현재 총액 H0154B 만원
(3) 저축성 보험	① 예 ② 아니오 H0155A	현재 총액 H0155B 만원
(4) 아직 타지 않은 게	① 예 ② 아니오 H0156A	현재 총액 H0156B 만원
(5) 기타 HH157B	① 예 ② 아니오 H0157A	현재 총액 H0157C 만원

■ 문5. 귀댁에는 다음과 같은 부채가 있습니까? 있다면 갚아야 할 잔액 총액과 한 달 평균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항 목	부채 유무	원리금 상환액	현재잔액
(1) 금융기관 부채 (주택융자금, 마이너스 통장, 카드대출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H0158A	월평균 H0158B 만원	H0158C 만원
(2) 비금융기관 부채 (사채, 회사를 통해 혹은 친구·친지에게 빌린 돈, 앞으로 부여야 할 게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H0159A	월평균 H0159B 만원	H0159C 만원
(3) 기타 HH160B	① 예 ② 아니오 H0160A	월평균 H0160C 만원	H0160D 만원

2)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연령

■ 문3. 이 자녀는 올해 몇 살입니까?

❖ 만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 **P01216** 세

(2) 성별

■ 문4. 이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P01217** ① 남 ② 여

(3) 취업상태

■ 문6. 현재 이 자녀는 어떤 상태입니까? **P01219A**

- ① 취업 준비 중이다(직업훈련을 위한 학원 포함)
- ②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휴학 중이다
- ③ 학교를 마치고 진학(유학)을 준비하고 있다(학원 포함)
- ④ 일을 하고 있다
- ⑤ 군복무 중이다
- ⑥ 집안일을 하고 있다
- ⑦ 아무 일도 안하고 있다
- ⑧ 기타 _____

(4) 만 6세 이하 자녀 유무

■ 문9. 이 자녀는 돌보아야 할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습니까? **P01238**

- ① 예 → 10으로 가십시오.
- ② 아니오 → [22. 본인의 부모님과의 관계]로 가십시오.